

文學碩士 學位論文

한반도 동남부지역
적색마연토기의 지역성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志 映

2007年 12月

한반도 동남부지역
적색마연토기의 지역성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志 映

金志映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12月

목 차

I. 머리말	1
II. 출토유적의 소개	5
III.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속성분류	33
IV.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성격	39
1. 시기적 위치	39
2. 성격	42
1). 지역성	42
2). 제의적 성격	44
V. 맺음말	47
참고문헌	49
Abstract	64

도면 목차

도면 1. 적색마연파수부토기 출토유적 분포도	6
도면 2. 대구 동천동유적 출토 적색마연파수부토기	8
도면 3. 대구 서변동유적 출토 적색마연파수부토기	10
도면 4. 대구 대천동 구 내부 출토유물	11
도면 5. 대구 대봉동유적 출토 적색마연파수부토기	12
도면 6. 대구 시지동 2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4
도면 7. 경산 옥곡동 A-13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5
도면 8. 대학리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6
도면 9. 마곡리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7
도면 10. 청도 진라리 64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8
도면 11. 밀양 가인리 10호묘 및 출토유물	19
도면 12. 경주 석장동 5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21
도면 13. 경주 황성동유적 출토 적색마연파수부토기	22
도면 14. 경주 황성동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24
도면 15. 울산 굴화리장검 4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25
도면 16. 울산 신정동 12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26
도면 17. 양산 소토리 37호묘 및 출토유물	27
도면 18. 산청 사월리 7호 수혈 및 출토유물	28
도면 19. 산청 사월리 동편환호 출토유물	29
도면 20. 대평 옥방 1지구 115호 구상수혈 및 출토유물	30
도면 21. 적색마연 환상파수부토기(S=1/6)	54
도면 22. 적색마연 유상파수부토기(S=1/6)	55
도면 23. 적색마연 유상파수부토기(S=1/6)	56

표 목차

표 1. 적색마연파수부토기 속성분류표	36
표 2. 적색마연파수부토기 유형분류	38
표 3. 적색마연파수부토기 공반유물 분류표	39
표 4. 검토대상 (장)방형주거지 속성표	57
표 5. 검토대상 송국리형주거지 속성표	58
표 6. 검토대상 석관묘 속성표	59
표 7. 검토대상 기타유구 속성표	59
표 8. 검토대상 적색마연 乳狀파수부토기 현황표	60
표 9. 검토대상 적색마연 環狀파수부토기 현황표	62

I. 머리말

청동기시대의 적색마연토기는 분묘에서 출토하는 적색의 원저호가 완전한 상태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후 발굴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충적지, 구릉지 등에서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에 대한 자료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적색마연토기가 분묘 이외에 주거지 등에서도 출토하는 것이 밝혀지고, 차츰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적색마연토기는 일반 무문토기와 같이 출토되면서도 전혀 다른 기형(원저, 외반구연)에 다른 제작방법(기벽에 마연하는 수법, 얇은 두께)이 사용되고 있는 등 일반 무문토기와는 다른 고난이도의 제작기술을 요하는 것과 적색이 주는 의미와 분묘에서의 출토상황이 결합되어 제의용 토기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거지 등에서의 출토예가 알려지면서 실생활 용기로서의 기능도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적색마연토기는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토기와 맞닿는 부분인 내면에는 붉은 칠과 마연부분이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능과 용도를 추측하는데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적색마연토기의 전반적인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색마연토기는 그 용도와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일찍부터 무문토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일찍이 後藤直¹⁾에 의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後藤直¹⁾은 구경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5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전기부터 후기 종말기까지로 추정하는 등의 형식학적 방법을 통한 편년작업을 행하였다. 그리고 횡마연, 종마연 등의 마연의 방향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는 기종의 특성에 따라 구연부, 동체부에서의 마연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노혁진²⁾은 특수용기로 사용된 듯한 분묘출토 원저단경호만을 홍도라 부르고 나머지 단을 칠한 토기를 적색 또는 단도마연토기로 일괄하여 호칭할 것으로 제안하고, 기종별 분류를 행하고 시기와 분포에 대하여 논하였다.

하인수³⁾의 연구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의하면 적색마연토기는 무문토기형 적색마연토기와 전형 적색마연토기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1) 後藤直, 「朝鮮南部의 丹塗磨研土器」, 『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考』, 1980.

2) 盧赫眞, 「紅陶」, 『韓國史論』 17, 國史編纂委員會, 1987.

3)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전형 적색마연토기는 다시 器高 15cm 전후를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어지며, 사용시기는 무문토기시대 전·중기, 즉 B.C. 8세기에서 B.C. 4세기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안재호⁴⁾는 丹이란 鑛物的 의미가 토기개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색마연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적색마연대부호가 전기에 미리 나타나며, 전형 적색마연토기의 동북지방에서의 계보를 밝히고 의례적인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송국리식토기인 외반구연의 호형토기의 출현을 동일집단에 의해 제작된 적색마연토기에서 구하고 있다.

송영진⁵⁾은 한반도 남부지역 전체의 적색마연토기를 다루면서 안료⁶⁾를 밝혀 명칭문제를 해결하고 실험을 통해 제작기법을 정리하며 분류를 함에 있어 기종에 따른 분류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적색마연토기는 무문토기의 등장과 동시에 출현하여 변화하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유행하는 기종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적색마연토기는 무문토기에 비해 훨씬 다양한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종은 저마다 독자적인 전개양상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적색마연토기에 대한 연구는 원저호라는 특정 기종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적색마연토기의 기종별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강유역과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의 저부 형태는 대부분이 원저 내지 말각평저인 반면, 중서부지역의 적색마연토기는 평저인 점이 특색이다. 이를 송만영⁷⁾은 기종에 따라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토기로 부르면서 저부의 형태, 저부와 동체부의 연결각도, 건부의 유무를 기준으로 2형식으로 분류하고 1형식에서 2형식으로의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만영 역시 중서부지방의 적색마연토기가 평저인 점에 비해 원저 계통의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토기가 송국리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적 요소가 강한 토

4) 安在皓, 「赤色磨研土器의 出現과 松菊里式土器」, 『韓國農耕文化의 形成』, 학연문화사, 2002.

5) 宋永鎮, 「韓半島 南部地域의 赤色磨研土器 研究」, 『嶺南考古學』 38, 嶺南考古學會, 2006.

6) 안료는 적갈색을 띠는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천연석으로는 적철석에서 산출된다. 벵갈라(Bengala)라고 부르며 적색안료나 유리연마제로 사용된다. 참고로 산화제일철(FeO)은 검은색, 산화제삼철(Fe_3O_4)은 검은색 혹은 흑적색을 띤다.
두산동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4, 1998.

7) 宋滿榮,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性格-西南韓地方을 中心으로-」,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pp.44~50.

기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계보와 출자에 대해서는 불명하다.

송영진, 고민정⁸⁾은 횡침선문이 시문된 “적색마연완”이 주로 남강수계에 출토하는 것에 주목하여 무문토기시대 중기의 주거지나 수혈, 구, 집석 등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이 토기는 진주 대평리 유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강한 지역성이 인정된다.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는 전체적인 기형은 천발형에 속한다. 기형은 동상방이 강조되어있으며, 구연은 대개 내경하는 형태이지만, 일부 직립하거나 구연단만 살짝 외반하는 형태도 있다. 구연에서 3~4cm 아래에 一條의 횡침선이 돌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토기는 이중구연 마연토기, 부리형석기 보다는 다소 늦은 무문토기시대 전기 후반에 세장방형주거지 단계에 출현하여, 중기 전반 휴암리형 주거지 단계에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중기 후반 송국리형 원형주거지 단계에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혜진, 배진성⁹⁾은 편구형에 가까운 동체부와 원저, 직선적으로 내경하는 경부, 짧게 외반하는 구연부, 그리고 동체부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내면의 꺾임이 분명하게 제작된 특정형식의 적색마연호가 함안지역의 분묘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함안식적색마연호”로 설정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공반되는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등과 함께 오곡리와 도동의 분묘가 송국리형 주거지에 후행하는 점에서 중기후반 내에서의 일시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무문토기 중기에 들어서면 발, 옹, 호형으로 일관하던 무문토기의 기형에 적색마연토기를 필두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종이 구성되면서 각자의 독자적인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적색마연토기에 파수가 붙은 형태가 확인된다. 이 파수는 두가지 형태가 확인되었고 이들을 조합하여 보니 한반도의 동남부지역에서의 분포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또한 하나의 적색마연토기 내에서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적색마연파수부토기가 출토한 23개 유적의 65점에 대하여 출토위치와 개별 유물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이 적색마연파수부토

8) 宋永鎮, 「IV.고찰」, 『晉州 大坪里 玉房3地區 先史遺蹟』, 國立慶尙大學校博物館, 2001.

高旻廷, 「무문토기시대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 고찰」, 『咸安 鳳城里遺蹟』,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

9) 金惠珍, 裴眞晟, 「咸安地域 支石墓의 特徵과 地域性」, 『咸安地域調査』, 慶南考古學研究所, 2005.

기의 개별 속성(파수형태, 기종, 구연부 형태, 동최대경의 위치, 파수부착 위치)을 추출하여 유형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공반하여 출토하는 무문토기와 석기 등을 통하여 청동기시대 내에서의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시기적인 위치를 정하고, 기종에 따른 지역성과 적색마연토기 자체의 제의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점을 살피고자 한다.

II. 출토유적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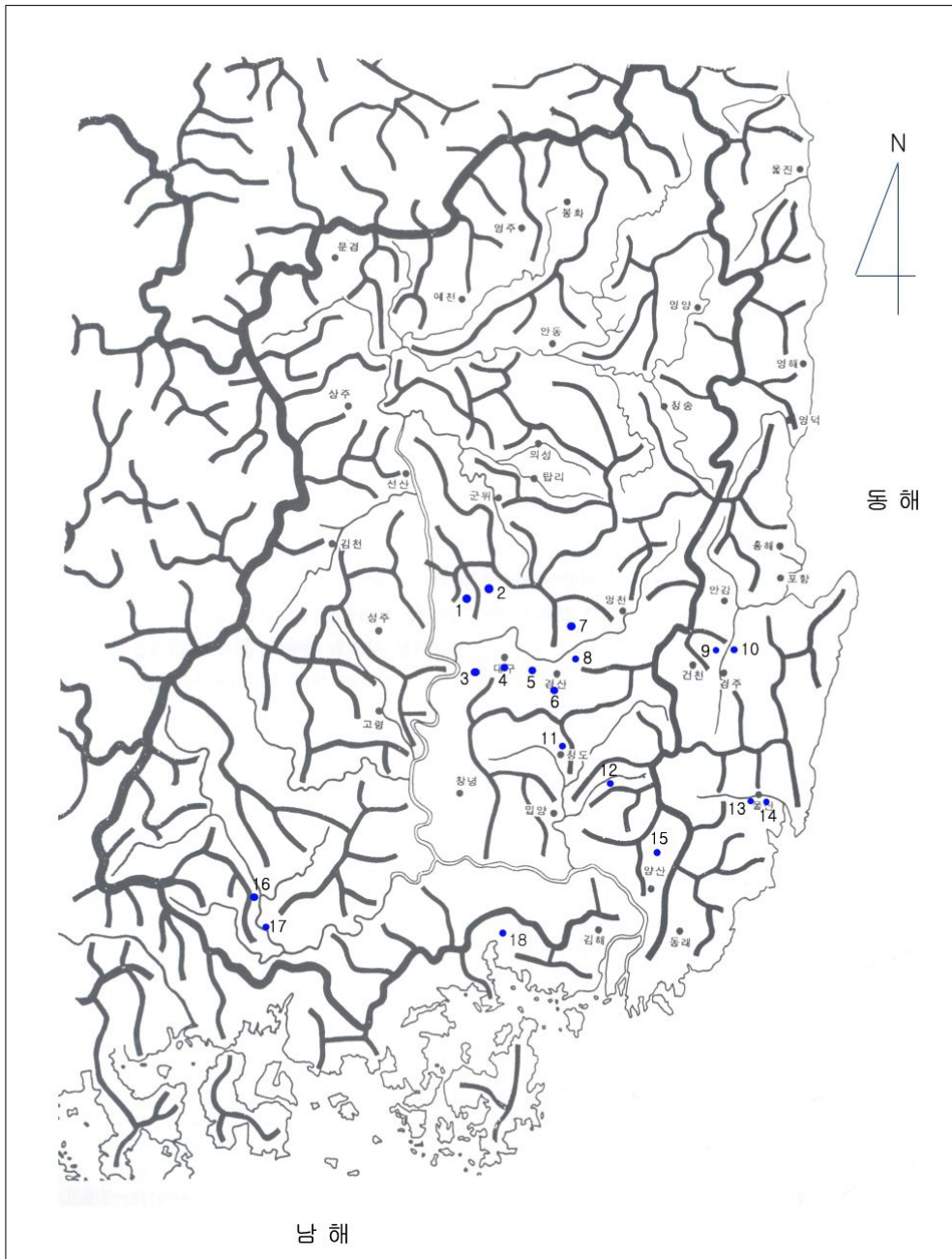
한반도의 동남부지역¹⁰⁾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상남·북도 지역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구분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며 동쪽과 남쪽은 바다와 연접해 있고, 서쪽은 소백산맥에 의해 전라도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지류에 의해 둘러 싸여져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문화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동남부지역에서 적색마연 파수부토기가 확인된 유적은 23개 유적으로 생활관련 유구인 주거지 21곳과 수혈유구가 4곳, 매장관련 유구인 석관묘 3곳, 기타 취락관련 시설인 환호, 구상유구, 집수지가 8곳 그리고 요(야외노지) 1곳, 제사유구 1곳에서 출토하고 있다(표 4~7). 이들 유구에서 총 65점의 적색마연 파수부토기가 출토하고 있다(표 8~9).

아래에서는 적색마연파수부토기가 출토한 유적의 입지와 출토유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10) 청동기시대의 지역구분을 함에 있어 현재의 행정적인 지역구분보다는 지형, 산, 수계 등에 의한 구분이 그 당시의 문화상을 논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동남부지역으로 하였다. 이는 현재의 호남지역인 서남부지역과 대칭된다.



도면 1. 적색마연과수부토기 출토유적 분포도(이희준 1997, p.84. 그림2보완)

1. 대구 동천동, 동호동 2. 대구 서변동 3. 대구 대천동 4. 대구 대봉동, 상동 5. 대구 시지동 6. 경산 옥곡동 7. 하양 대학리 8. 경산 마곡리 9. 경주 석장동 10. 경주 황성동, 황성동 951-17번지 11. 청도 진라리 12. 밀양 가인리 13. 울산 굴화리 장검 14. 울산 신정동 15. 양산 소토리 16. 산청 사월리, 사월리환호 17.진주 대평리 옥방 1지구, 9지구 18. 창원 상남

1. 대구 동천동 유적¹¹⁾(도면 2)

동천동 유적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361-2, 380번지 일대에 분포한다. 유적은 대구분지 북쪽을 동서방향으로 흐르고 이에 남북방향으로 합류하는 팔거천과 팔공산 지맥의 산지퇴적물이 형성 시킨 칠곡분지의 한 지점으로 팔거천 바로 동쪽의 해발 38m 전후(37~39.2m)의 微高地性 沖積地帶에 위치한다.

대구 동천동 취락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석관묘, 우물, 집수지, 집석, 구상유구, 경작지, 환호, 하도 등 당시 취락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많은 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수혈과 수리시설, 하도, 경작지 등의 삼국시대 유구도 일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전체 60동 중 송국리형의 원형, 말각방형이 47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노지를 가진 장방형, 방형 주거지들이 있다. 송국리형의 경우 내부 가운데 수혈이나 기둥구멍의 개수나 형태에 따라 다시 세분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형태는 평면 원형에 가운데수혈 양쪽에 크기가 작은 기둥구멍이 배치된 것으로 15동이며, 다음으로 기둥구멍만 2개 확인되는 것이 10동, 기둥구멍과 가운데수혈이 크기가 거의 같아 서로간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이 6동, 오히려 가운데 수혈이 더 작은 경우가 4동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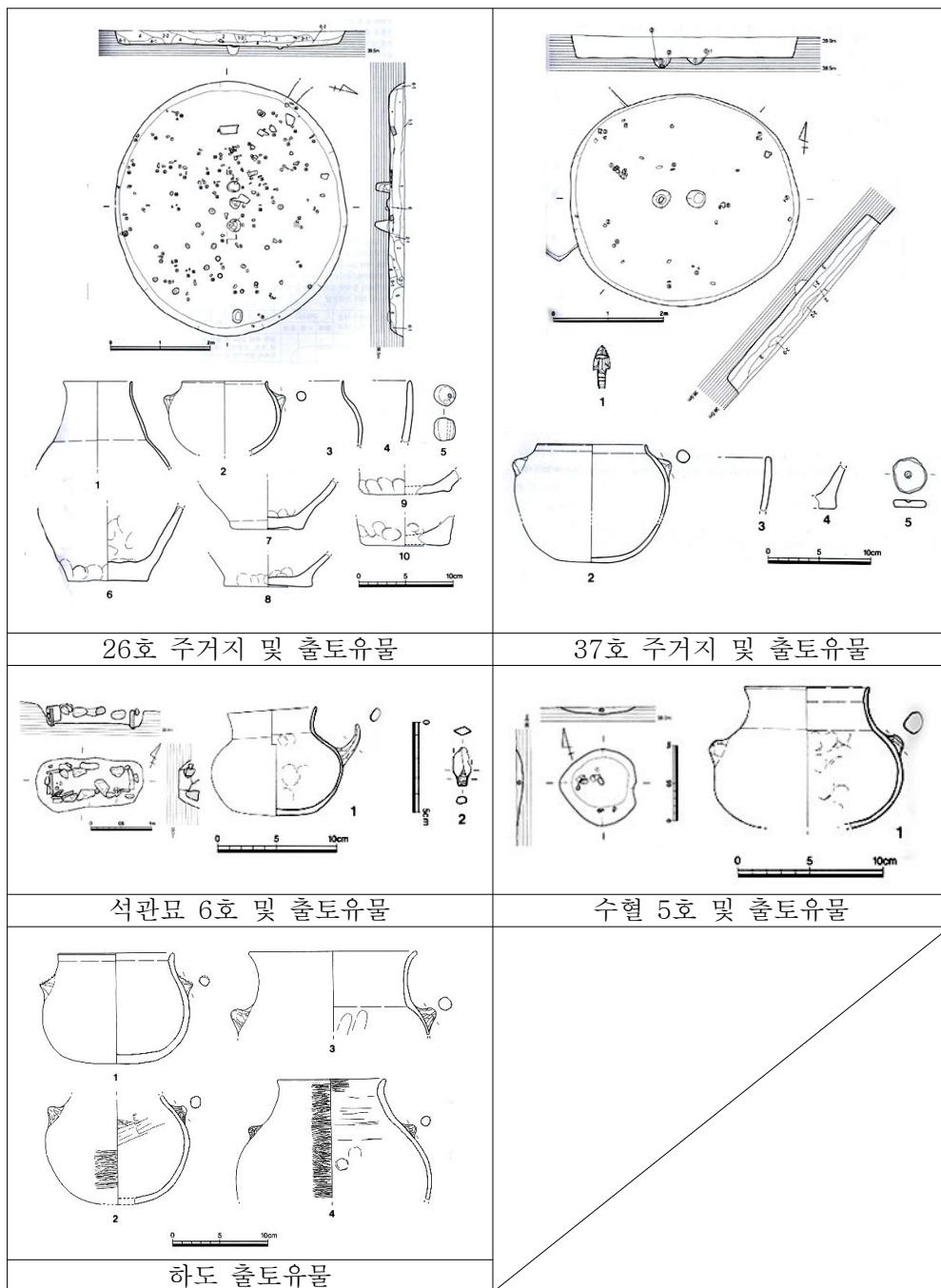
중복관계로 보아서는 노지를 가진 장방형, 방형주거지 보다 송국리형이 후대로 추정되며, 송국리형 주거지군 내에서도 시기적인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편년을 위한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

주거지 26호는 평면 원형의 수혈주거지로 가운데 부분에 N-70° -E방향으로 연결되는 수혈 3기가 나란히 만들어져 있다. 수혈의 평면 직경은 25, 22, 25cm로 비슷하지만 깊이에 있어서 각각 28, 5, 29cm로 가운데 수혈을 중심으로 양쪽의 것이 그 규모가 대조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본 유적의 다른 원형 주거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유물이 확인된다. 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 저부편 5점, 적색마연토기 3점, 어망추 1점, 석촉편 1점, 석검편 1점, 석부편 1점, 마연석기 2점, 미완성석기 9점, 지석 4점, 석기원석 1점, 박편 64점이 출토하였다.

주거지 37호는 평면 말각방형에 가까운 원형이고, 가운데 부분에 동서방향(N-85° -E)쪽으로 2개의 원형 수혈이 27cm의 거리를 두고 각각 직경 32cm, 30cm, 깊이 12cm, 19cm로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 구연부 1점, 저부 1점, 적색마연토기 1점, 원반형토기 1점, 석촉 2점, 미완성석기 2점, 원판석기 1점, 박편 7점이 출토하고 있다.

11)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東川洞聚落遺蹟』, 2002.

이외에 주거지 21호에서 적색마연 파수부편 1점, 주거지 40호에서 파수를 결실한 적색마연호 1점이 출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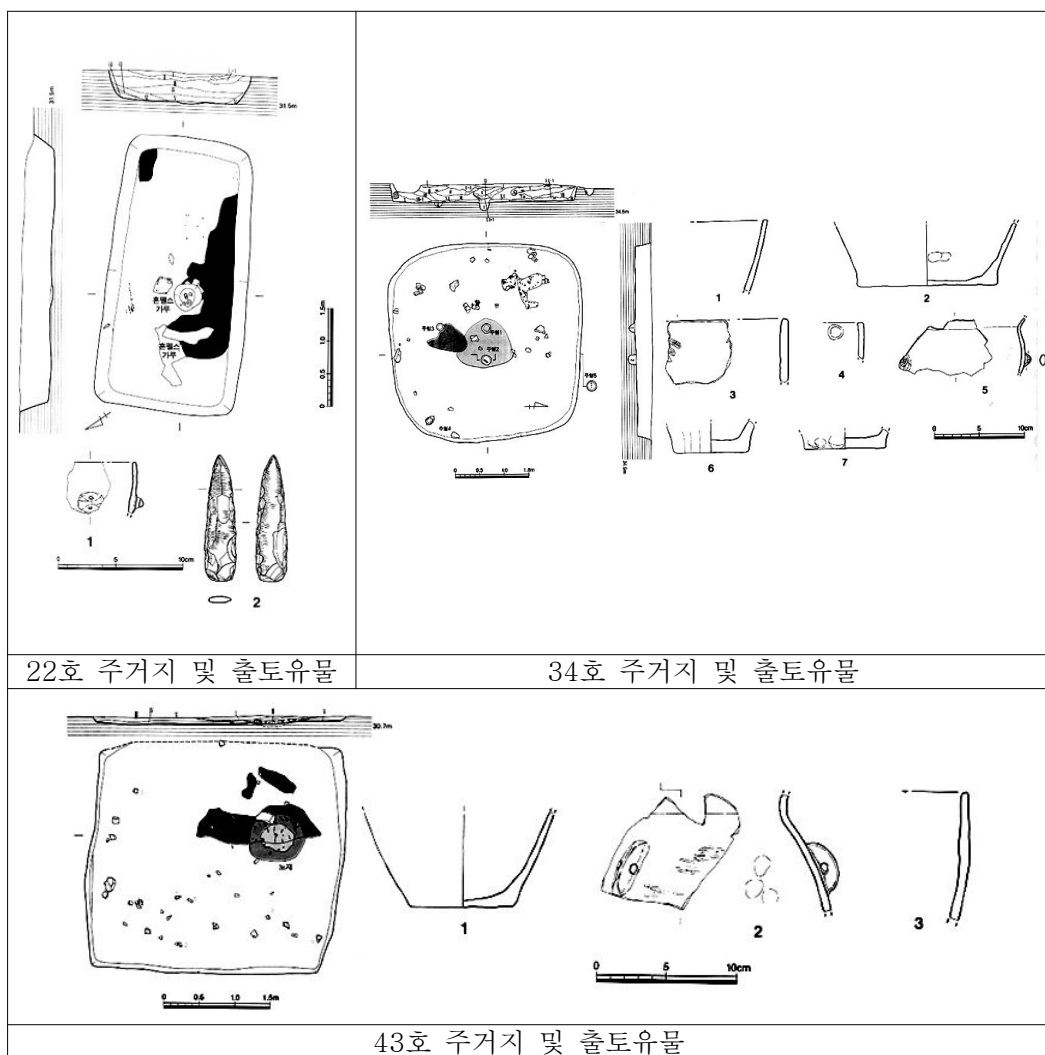
도면 2. 대구 동천동유적 출토 적색마연파수부토기

2. 대구 서변동 유적¹²⁾(도면 3)

서변동 유적은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670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함지산 아래 도곡골에서 흘러내린 퇴적물에 의한 선상지와 동화천의 범람성 퇴적지대가 접하는 지점에 입지한다. 본 유적에서는 수혈주거지 49동, 고상건물지 3동, 경작유구, 석관묘, 집석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 34호는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으로 가운데에 장축을 따라 동서방향(N-85° -E)에 근접하게 2개의 수혈이 확인된다. 주혈은 43cm의 거리를 두고 직경 20cm에 깊이는 11~15cm 정도이다. 이외에 2개의 주혈이 더 확인된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 구연부 2점, 저부 3점, 적색마연토기 2점, 석검편 1점, 석기편 2점이 출토하였다.

12)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西邊洞聚落遺蹟 I』, 2002.



도면 3. 대구 서변동유적 출토 적색마연파수부토기

3. 대구 대천동 유적¹³⁾(도면 4)

대천동 유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413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대구분지의 남부산지를 이루는 대덕산, 앞산, 청룡산으로 이루어진 비슬산괴의 산록지대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유적의 남쪽은 대덕산서록에서 발원한 진천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서쪽에는 남쪽으로 흐르는 성당천들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복합선상지이다. 유적은 해발 28~30m 정도의 비교적 평탄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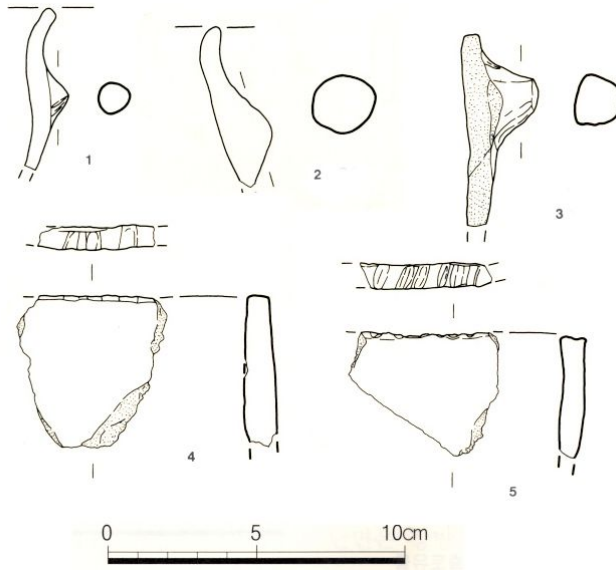
13) 慶州大學校博物館, 『大邱 大泉洞 現代 홈타운 新築敷地 內 發掘調査報告書』, 2007.

상지의 선단에 입지한다.

본 유적에서는 수혈주거지 4동, 구 1기, 근·현대 우물 20기, 집석유구 3기,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구순각목토기,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어망추, 방추차, 석촉, 합인석부, 연석, 갈돌 등이 출토하고 있다.

유적의 남쪽부분에서 동-서로 연결되는 구가 확인되었다. 길이는 약 155m 이고, 너비는 약 0.8~5.2m, 깊이는 8~64m 사이로 일정하지 않다. 단면은 대부분이 ‘U’ 자이고 일부에서는 ‘W’ 자 상의 형태를 가진 곳도 확인된다. 내부에서는 구순각목토기,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방추차 2점 등이 출토하였고, 적색마연 파수부편 4점이 출토하고 있다.

이외에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에서 4점의 적색마연 파수편이 검출되었다.



도면 4. 대구 대천동 구 내부 출토유물

4. 대구 대봉동유적¹⁴⁾(도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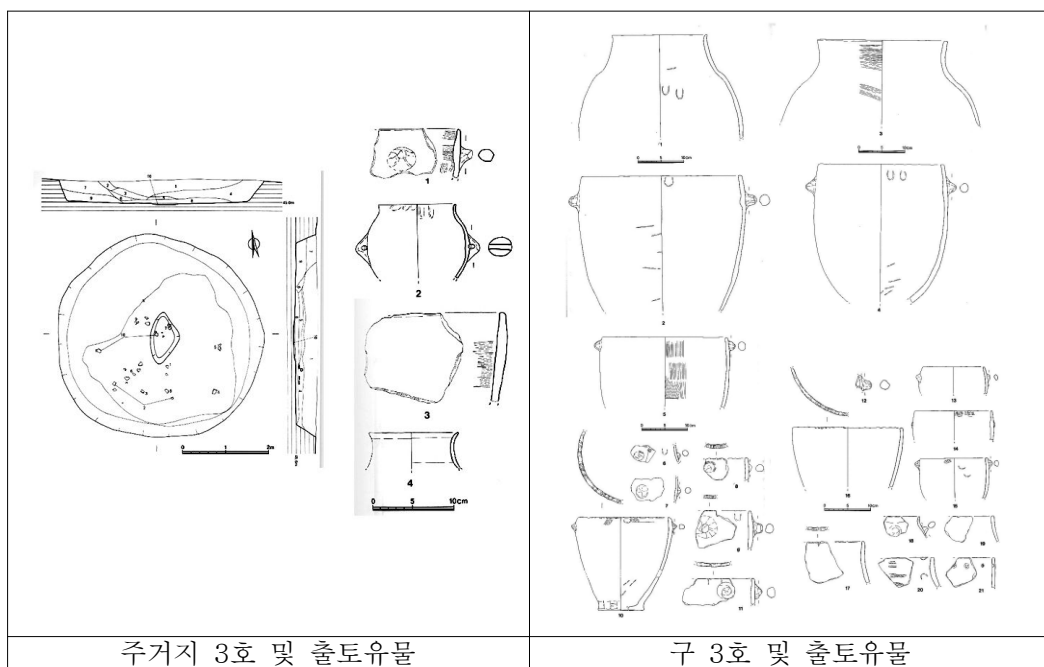
대봉동 유적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10번지에 소재한다. 본 유적은 신천에서 서쪽으로 35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넓은 충적지로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35동, 수혈유구 34기, 구상유구 4기, 불명유구 4기, 근대 우물 2기가 조사되었다.

14)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大邱 大鳳洞 마을遺蹟』, 2006.

유적 내에서 확인되는 유물로는 주거지주변과 내부에 매몰토 내에서 즐문토 기편이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내부에 위석식노지를 갖춘 장방형 주거지에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 공렬토기, 삼각만입석촉 등이 확인되고, 원형 주거지에 무문양의 발형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중 3호 원형 주거지는 내부에 주혈은 확인되지 않고 바닥면 중앙에 노지로 판단되는 소토와 목탄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심발형토기, 무문양의 파수부발형토기, 적색마연토기, 어망추, 석기 등이 출토하였다. 3호 주거지보다 규모는 작으나 27호 원형 주거지는 중앙수혈과 양주혈을 설치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무문양의 파수부발형토기가 출토하고 있어 본 유적에서 같은 단계로 판단되어 참고가 된다.

한편 3호 구는 4호 구 내부에 조영되어 평면형태 ‘—’ 자형을 이룬다. 바닥에는 자갈이 두껍게 깔려 있으며, 자갈과 사질토 사이에서 호형토기, 무문양 파수부발형토기, 구순각목 파수부발, 구순각목, 공렬토기, 적색마연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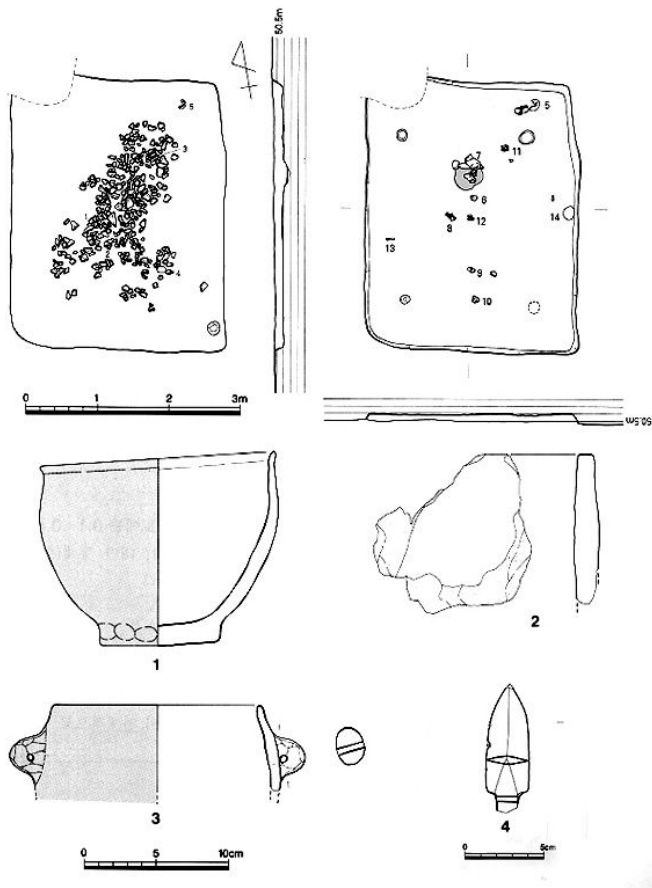
도면 5. 대구 대봉동유적 출토 적색마연파수부토기

5. 대구 시지동 60-1번지 유적¹⁵⁾(도면 6)

시지동 60-1번지 유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0-1번지 일대에 소재한다. 유적은 해발 129.9m인 牛山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의 선단부와 평지 그리고, 시지동고분군이 위치하는 해발 159.9m 능선의 동쪽능선과 연결되는 평지지역에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주거지 2동, 집석유구 6기, 구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고 내부 중앙에 1개의 노지를 가지고 있다. 주혈은 2호 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4주식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에는 중앙에 전면적으로 천석들이 채워져 있다. 2호 주거지에서는 발형토기, 적색마연토기, 일단경식석축, 석부 등이 출토하고 있다. 일단경식석축은 신부의 단면형태는 제형이며, 경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경부의 단부가 파손되어 일단경식석축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경식석축의 경우 경부의 단면이 육각형에서 장방형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경식석축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재호의 IIIa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그의 편년안에 따르면 무문토기 시대 전기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5)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時至洞 60-1番地遺蹟』, 2004.



도면 6. 대구 시지동 2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6. 경산 옥곡동 유적¹⁶⁾(도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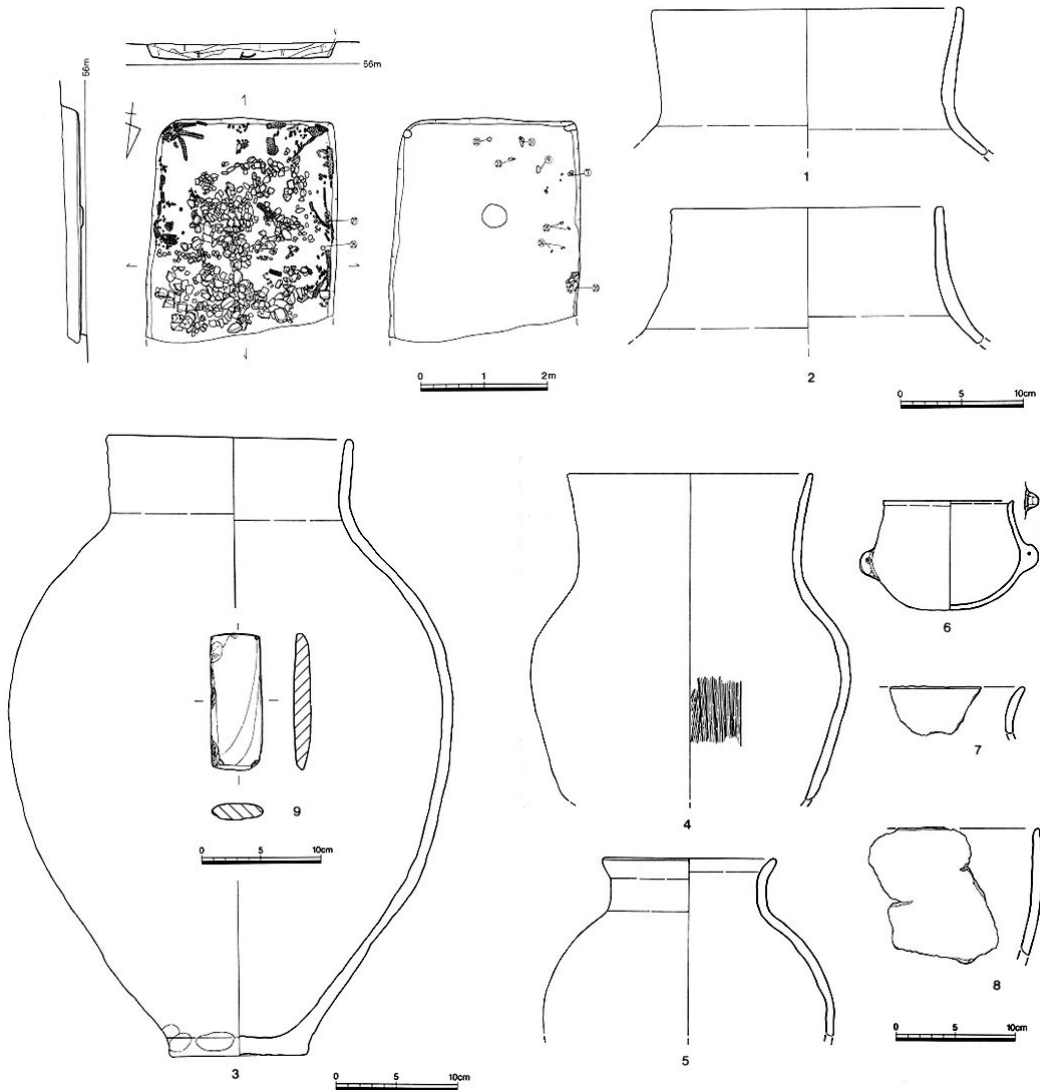
옥곡동 유적은 경산시 옥곡동 일원으로 남천의 서안에 접한다. 유적은 성암산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말단부가 해발 70m를 내려와서는 넓은 평탄면을 이루며 옥곡들로 이어진다. 이 구릉 말단부에서 남천의 서안 자연제방 사이에 입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주거지 91동, 고상건물지 3동, 수혈 26기, 집석 2기, 구 6기가 조사되었는데 전체 조사부지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유물 중 장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구순각목, 구순각목단사선, 공렬, 구순각목공렬단사선문 토기가 방형주거지에서는 한 점도 출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형주거지는

1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山 玉谷洞 遺蹟 I』, 2005.

장방형주거지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 장방형인 A-13호 주거지는 화재로 폐기되었으며 내부에서는 호형 토기, 발형토기, 적색마연토기, 편평편인석부, 지석, 방추차 등이 출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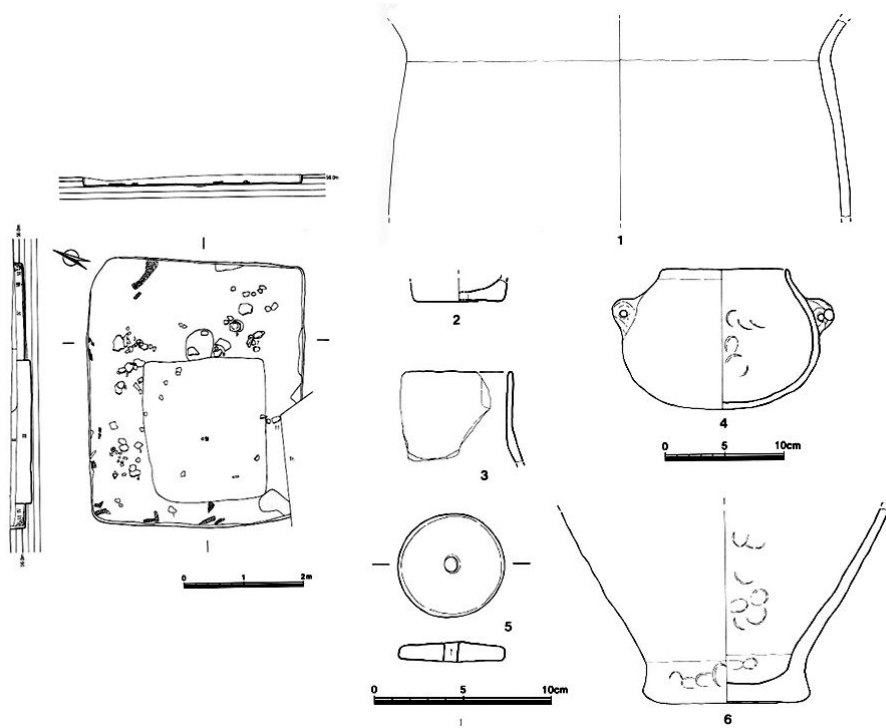


도면 7. 경산 옥곡동 A-13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7. 하양 대학리유적¹⁷⁾(도면 8)

대학리 유적은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969-1번지에 소재한다. 대학리는 하양

읍의 북부에 위치하고 무학산에서 동남쪽 와촌들로 뻗어내린 해발 120~137m의 능선 남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능선들은 919번 국도를 경계로 금호강까지 펼쳐진 넓은 와촌들과 만나게 되는데 본 유적은 가라골과 와촌들이 만나는 접점지역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1동, 수혈유구 1동, 구상유구 3기,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도면 8. 대학리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으로 무시설식의 수혈식노지가 원형으로 확인되고, 소토와 탄화된 목탄으로 인해 화재 후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는 수혈로 인해 파괴되었다. 무문토기, 적색마연파수부호, 방추차, 미완성석기가 출토하였다. 이 중 옹형토기(도면8-1)는 청동기시대 중기의 일반적인 형태와 차이가 있어 본 주거지는 시기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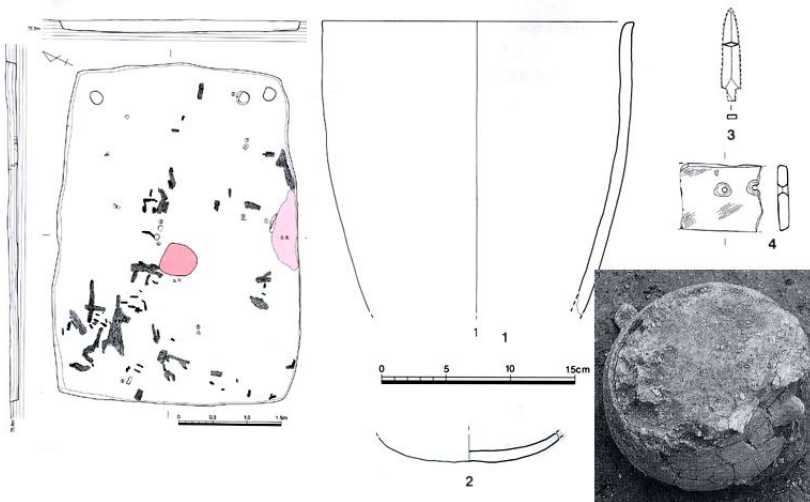
17)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河陽 大鶴里·瓦村 東江里遺蹟-』, 2005.

8. 경산 마곡리 유적¹⁸⁾(도면 9)

마곡리 유적은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 10-2번지 및 현내리 729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선암산에서 북서방향으로 뻗어내린 낮은 구릉의 말단으로 좁은 곡간을 따라 펼쳐진 광석들의 가운데에 입지한다.

본 유적에서는 해발 80m의 평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수혈, 구상유구, 야외노지, 주혈군 등의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1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주거지의 중앙에 직경 50cm 정도의 노지가 확인되며, 동단벽 근처에서 직경 20cm 정도의 주혈이 2개 확인된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 4점, 적색마연 파수부호 1점, 일단경식석촉 1점, 반월형 석도 1점, 미완성석기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9. 마곡리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9. 청도 진라리유적¹⁹⁾(도면 10)

진라리유적은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답 918-1번지 일원으로 산동과 산서지역을 가르는 북쪽의 용각산에서 남쪽으로 청도천을 향해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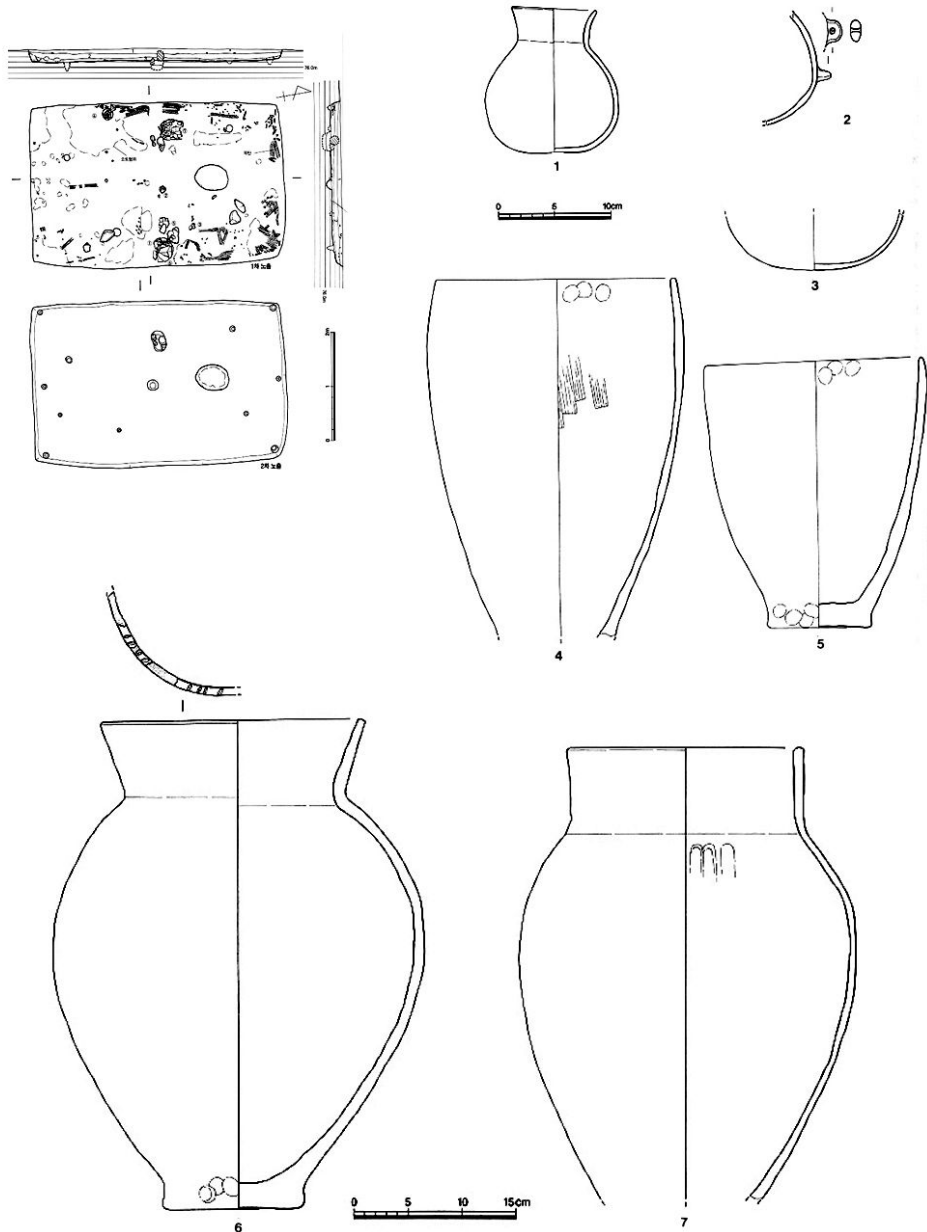
조사결과 주거지 93동, 고상건물지 4동, 지석묘 5기, 지석묘 상석 4기, 수혈유구 23기, 야외노지 5기,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개별속성과 출토유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간적 흐름이 평면형

18) 嶺南文化財研究院, 『慶山 麻谷里遺蹟』, 2005.

19) 嶺南文化財研究院, 『淸道 陳羅里遺蹟』, 2005.

태의 변화에 따라 세장방형 장방형 말각(장)방형 원형 주거지로의 변화가 명확하게 간취된다. 평면 장방형의 64호 주거지에서 적색마연토기, 발형토기, 구순각목호형토기가 출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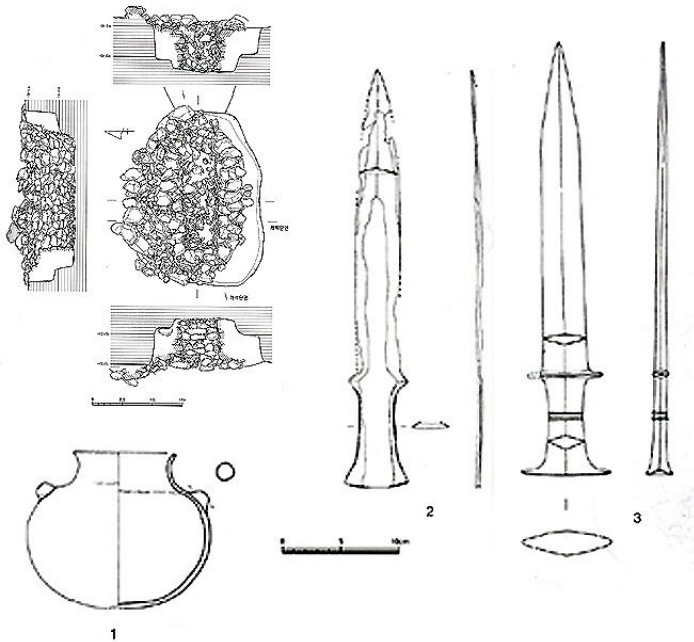
도면 10. 청도 진라리 64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0. 밀양 가인리 유적²⁰⁾(도면 11)

가인리 유적은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2439-1~2567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단층곡을 따라 흐르는 동천(낙동강의 3차 지류, 낙동강-밀양강-단장천-동천)의 상류역에 위치하며, 동천과 대체로 평행하게 전개되는 하안단구면과 그것을 개석한 구유로적상 凹地에 걸쳐 입지하고 있다.

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석묘 상석 3기와 석관 13기, 삼국시대 도로유구, 조선시대 도로유구가 조사되었다. 지석묘와 석관은 크게 3열로 배치된 공동묘지의 구조이며, 다호 상석 주변으로 5기(6·7·11·12·13호)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지석묘들은 모두 하부구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석관묘들은 모두 천석을 이용하여 쌓은 석축형이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일단병식, 유절식, 유경식석검 등이 출토하고 있다.

10호 석관의 묘광은 말각장방형의 2단 굴광이며 개석은 소형판석 4매를 3단 정도 덮고 있다. 시상석은 없으며, 석관 바닥은 소력~중력 크기의 냇돌과 황갈색 사질토의 자연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에서 일단병식석검 1점 유절식석검 1점, 유두상양이부적색마연토기소호 1점이 출토하였다.



도면 11. 밀양 가인리 10호묘 및 출토유물

20) 密陽大學校博物館(社)慶南考古學研究所, 『佳仁里遺蹟』, 2004.

11. 경주 석장동 유적²¹⁾(도면 12)

석장동 유적은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에 소재한다. 경주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현재 경주분지의 북쪽과 서쪽을 흐르는 북천과 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서쪽 對岸에 형성된 얇은 구릉의 남사면에 입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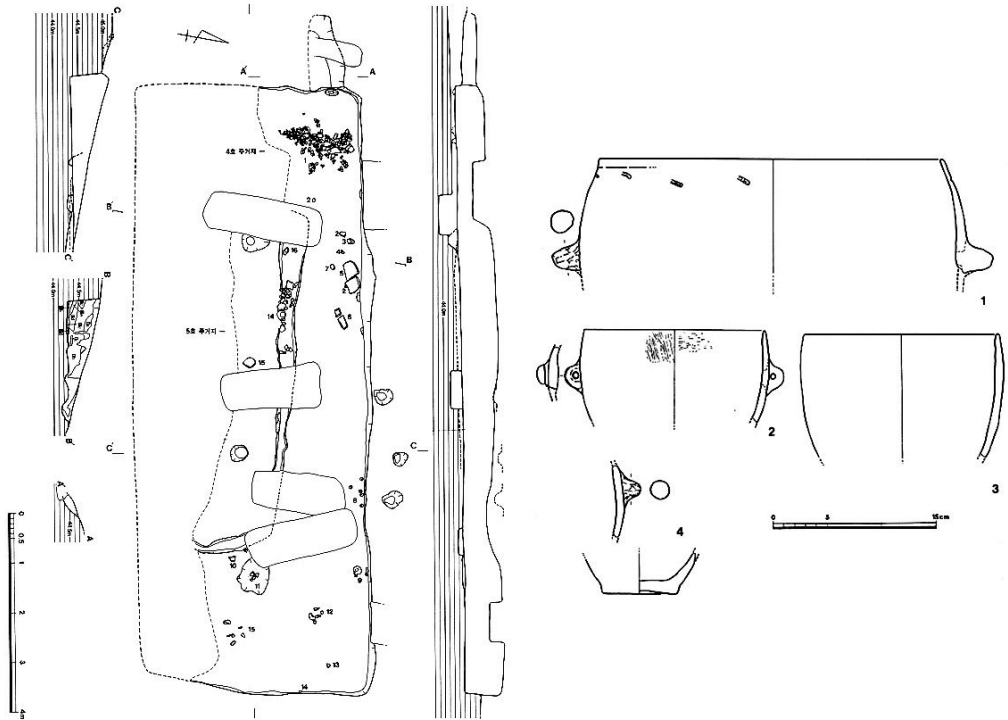
본 유적에서는 무문토기시대의 주거지,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식석곽, 횡혈식 석실분과 화장묘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군 등 여러 시기에 걸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무문토기시대 주거지는 11동이 확인되었고 해발 42~54m 사이와 62m를 전후하여 위치한다. 그 중 5호 주거지는 4호 주거지를 파괴하며 4호 주거지의 내부에서 남쪽사면이 유실되고 고려·조선시대의 분묘에 의해 파괴되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잔존하는 2개의 주혈을 기준으로 하면 4주식의 기둥 배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벽과 서벽을 따라 주구가 돌려져 있다. 내부에서는 파수부심발형토기 2점, 심발형토기 1점, 무문토기저부 3점, 적색마연토기 1점, 연석 1점이 출토하였다.

또한 11호 주거지 역시 8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형성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는 동시기에 공존하였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5호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한 적색마연토기는 耳附淺鉢로 추측되며, 구순은 뾰족하며 耳는 半球形으로서 圓孔이 貫通된 것이다. 구연 내외면은 종과 횡방향의 마연흔이 관찰되며, 단은 외면 전체와 내면의 구연부까지 도포되었다. 명적갈색을 띠며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21)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錫杖洞遺蹟』, 1996.
_____, 『錫杖洞遺蹟Ⅱ』, 1998.
_____, 『錫杖洞遺蹟Ⅲ』, 2002.



도면 12. 경주 석장동 5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2. 경주 황성동 유적²²⁾(도면 13)

황성동 유적은 경주시 황성동 907-2번지 일대로서 경주 분지 서북편, 해발 30m 내외의 비교적 평탄한 강안대지로 이 유적에서 서쪽 약 70m 떨어져 경주 서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이 강 방향을 따라 동서 강안에 충적대지가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

본 유적은 경주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여 경북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나누어 조사하였다. I-다 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9동, 원삼국시대 주거지 18동, 방형유구 2기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철기제작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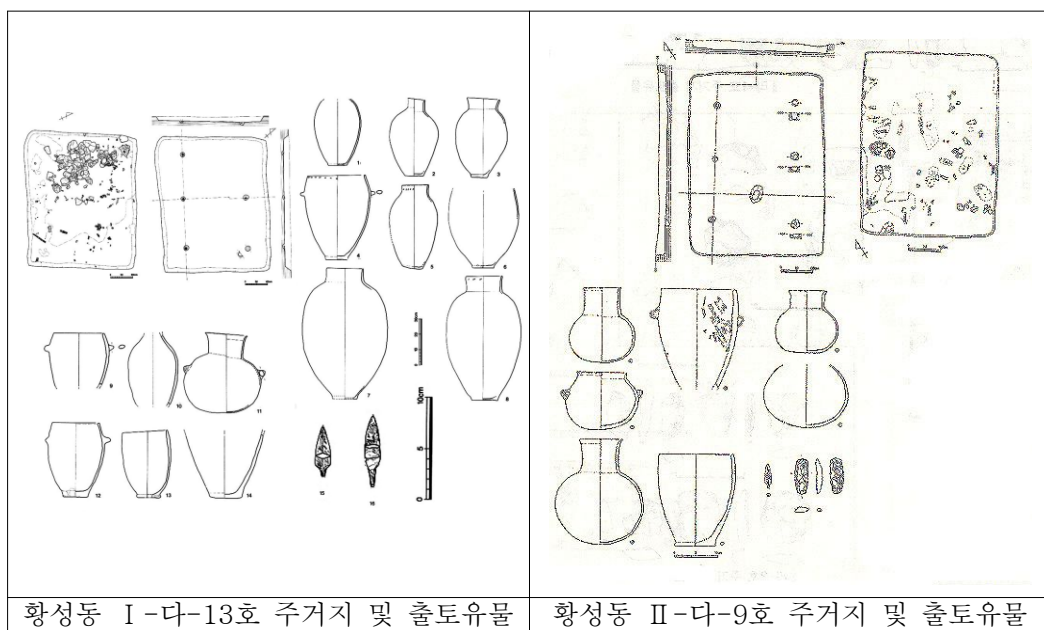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4주식 혹은 6주식의 주혈을 가지고 무시설식노지를 주거지 내부에 한 개씩 가지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공열문토기, 단사선문토기, 파수부심발형토기, 어망추, 방추차,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촉,

22) 啓明大學校博物館, 『慶州 隍城洞 遺蹟Ⅴ』, 2000.

일단경식축, 석창, 반월형석도, 합인석부, 대팻날, 석착(끌), 숫돌 등이 출토하고 있다.

I-다-13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장축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6주식의 주혈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서단벽으로 치우쳐 수혈식 노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 바닥은 고운점토 다짐을 하였다. 내부에서는 호형토기 8점, 발형토기 5점(파수부 심발형토기 3점), 적색마연파수부장경호 1점, 어망추 1점, 일단경식석축 2점, 갈판, 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하였다.

II-다-9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장축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6주식의 주혈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남단벽으로 치우쳐 수혈식 노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 바닥은 점토다짐을 하였으나 아래 자갈층의 돌들이 일부 노출되어있다. 내부에서는 공열토기 2점, 무문양의 심발형토기 1점, 파수부 심발형토기 1점, 적색마연 장경호 3점, 적색마연 파수부단경호 1점, 적색마연 원저편 1점, 일단경식석축 1점, 미완성석기 2점이 출토하였다.



도면 13. 경주 황성동유적 출토 적색마연파수부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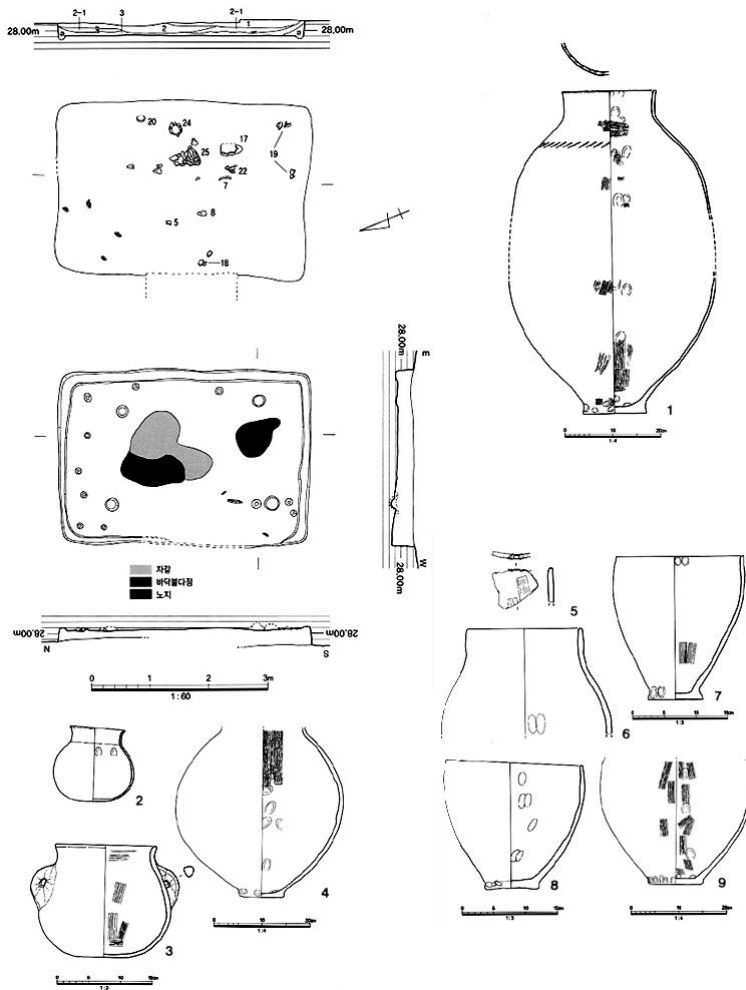
13. 경주 황성동 950-1·7번지 유적²³⁾(도면 14)

본 유적은 경주시 황성동 950-1·7번지 2필지로서 현재 계림고등학교 동편 측, 경주시 황성동 주공 2차 아파트의 입구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100m 정도에 황성동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형산강과 소하천의 영향으로 퇴적된 충적지대로서 대체로 평탄하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약하게 경사진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3동, 남북도로유구 1기, 수혈유구 2기, 구 3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내부시설로는 공통적으로 벽구와 불다짐처리, 주혈등이 조사되었다. 노지는 1, 2호 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무시설식의 수혈식 노지로 단벽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1호 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토기, 구순각목단사선호형토기, 적색마연토기, 지석, 석기박편,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하였다.

2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陸成洞950-1·7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 發掘調査報告書』, 2005.



도면 14. 경주 황성동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4. 울산 굴화리장검유적²⁴⁾(도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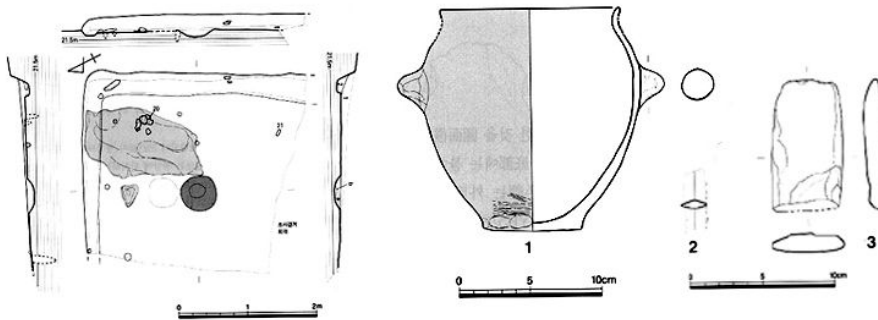
굴화리 장검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95-1번지 일원에 소재한다. 유적의 지형은 문수산에서 영취산으로 연결되는 산등성이에서 태화강 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구릉이 급경사를 이루며 내려오다가 해발고도 30~40m 전후의 높이를 기점으로 지형경사가 완만해져 넓은 평탄면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구릉 말단부와 태화강 사이에는 넓은 들판이 형성되어 있다. 본

24)蔚山文化財研究院,『蔚山屈火里長劍遺蹟Ⅰ』,2005.

_____,『蔚山屈火里長劍遺蹟Ⅱ』,2006.

유적은 백천들과 접해있는 구릉의 말단부에 입지한다.

조사결과 주거지 25동과 수혈 4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굴화리장검 유적 I 에서 보고한 1동을 포함하여 26동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이면서 1개의 노지와 벽주구와 배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출토유물로는 발형토기에 공렬문, 사선문, 구순각목문이 조합되어 나타나고, 적색마연토기, 이단병식석검 병부편, 일단경식석촉, 반월형석도, 석부, 어망추, 지석 등이 출토하고 있다. 4호 주거지에서 적색마연 과수부토기와 편인석부가 출토하였다.



도면 15. 울산 굴화리장검 4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5. 울산 신정동 유적²⁵⁾(도면 16)

신정동 유적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산 23-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해발 80m의 야산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야트막한 구릉의 끝자락과 양쪽 계곡에 해당한다. 구릉은 해발 27m로 낮고 완만하며 조사대상지역 북쪽으로는 소하천인 여천천이 흐르고 있어 유적이 위치하기에 좋은 위치이다. 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5동, 구 1기,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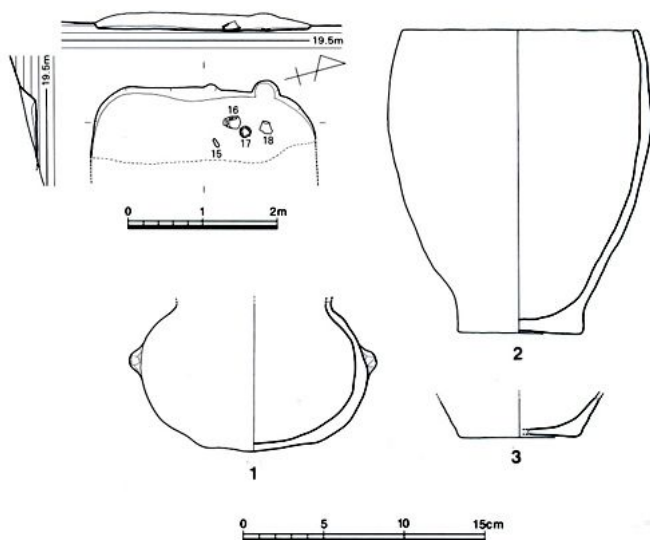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대부분 장방형이며 벽을 따라 벽주구가 있다. 4개 혹은 6개의 주혈이 있으며 노지가 주거지 1동에 한 개씩 설치되어있다. 출토유물은 무문양의 심발형토기, 과수부적색마연토기, 어망추, 별도끼, 함인석부 등이 출토하였다.

12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동쪽 사면이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벽주구와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상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무문양의 심발형토기 1

25)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 新亭洞 遺蹟』, 2003.

점, 저부편 1점, 적색마연 파수부토기 1점, 고석 1점이 출토하였다.

- 적색마연 파수부토기 : 바닥은 원저로 경부를 결실하였다. 동체부는 편구형이며 경부와외 경계는 희미하다. 외면에만 마연, 동체부 중앙에서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서 양쪽에 꼭지형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적색마연토기가 많이 출토되는 대평유적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에서는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대평유적에서 동상위에 꼭지가 부착된 적색마연토기가 검출되었지만, 이것은 무문토기형 적색마연토기로 본 유적에서 출토한 기형과는 차이가 있다. 동체부만으로는 적색마연원저호로 볼 수도 있지만 경부가 짧게 외반되는 점, 꼭지가 부착된 점, 일반적인 적색마연원저호의 태토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는데 반해 세사립이 비교적 많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한 점 등에서 적색마연원저호와 는 차이가 있다.



도면 16. 울산 신정동 12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16. 양산 소토리 유적²⁶⁾(도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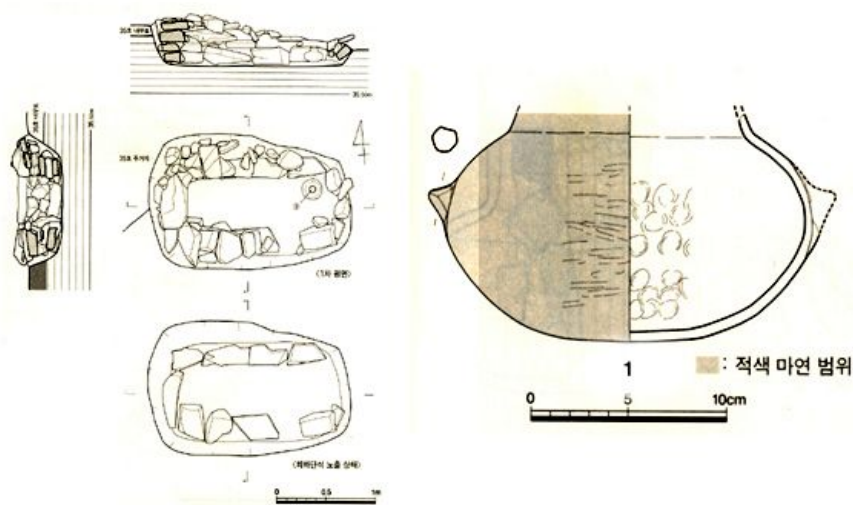
소토리 유적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674-4, 441-1번지 일대이다. 원효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구릉 위에 위치한다.

본 유적에서는 무문토기시대 주거지 17동(장방형주거지 4동, 타원형주거지

26) 慶南考古學研究所,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集落』, 2005.

13동), 무덤 20기(석개토광묘 9기, 석축형 석관 7기, 상형석관 4기), 고상건물지 2동,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구릉 정부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석축형 석관묘가 2기(11호, 43호)가 위치해 있고, 나머지 토광묘와 상형석관묘들은 남쪽 사면에 군을 이루고 있다. 석개 토광묘(목관)가 다수를 차지하며, 묘광의 규모가 큰 무덤의 경우는 석축형 석관의 구조이다. 또 상형석관은 묘광의 크기가 작은 무덤들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유경식석축, 일단병식석검, 유절식석검, 합인석부, 연석 등이 출토하고 있다.

37호 석관묘는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네 벽면은 경사지며 상면은 평탄하게 정지되었다. 개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벽석은 20~30cm 정도 크기의 할석을 방형으로 치석하여 석관의 재료로 이용하였다. 35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37호 묘가 조성되었다. 내부에서 적색마연 양이부호 1점이 북동모서리의 상면에서 출토하였다.



도면 17. 양산 소토리 37호묘 및 출토유물

17. 산청 사월리유적²⁷⁾(도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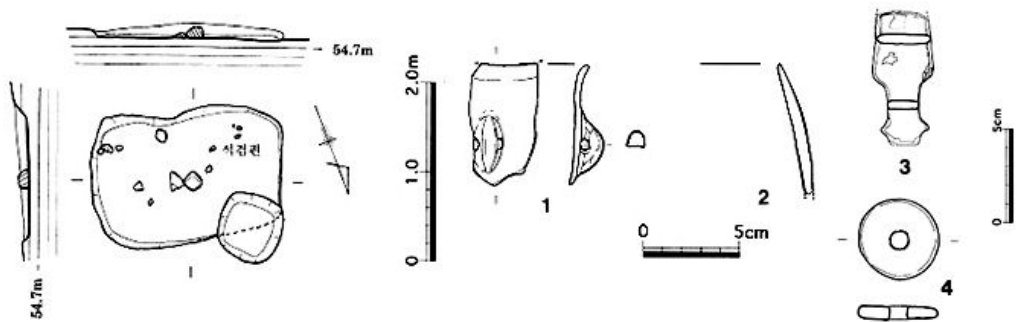
사월리 유적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선면 사월리 124번지 일대에 소재한다. 남강 서안에 형성된 넓은 충적지 가운데에 섬처럼 솟아있는 해발 58.6m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입지한다.

27) 東儀大學校博物館, 『山淸沙月里遺蹟』, 1999.

조사결과 주거지 19기, 수혈유구 11기, 구상유구 2기, 지석묘 1기, 분묘 8기와 그 밖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공반유물을 통해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세장방형 주거지에 노지, 주혈, 저장공, 벽구가 확인되고, 이중구연단사선, 공혈, 구순 각목토기와 삼각만입석촉, 이단병식석검, 주형석도 등이 출토하고 있다. 2단계는 말각방형, 타원형 주거지에 직립구연의 심발형 내지는 발형토기와 외반구연 옹형토기가 나타난다. 3단계는 말각장방형 주거지에 내부 중앙에 타원형수혈과 벽구를 가진 것이 확인된다. 외반구연 옹형토기의 출토빈도가 증가하고, 유경식석촉, 석검, 석창 등이 출토하고 있다.

소형의 수혈유구에서는 직립구연의 심발형 내지는 발형토기와 외반구연의 옹형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2단계 내지 3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단계에 해당하는 6호 주거지와 중복관계에 있는 8호 수혈의 확인으로 이들 소형 수혈유구는 본 유적의 3단계에 속하는 말각장방형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이중 7호 수혈은 평면 장방형으로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영되어져 있다. 내부에서 무문토기구연부편, 마제석검편, 지석, 방추차와 함께 적색마연과수부토기 구연부편이 출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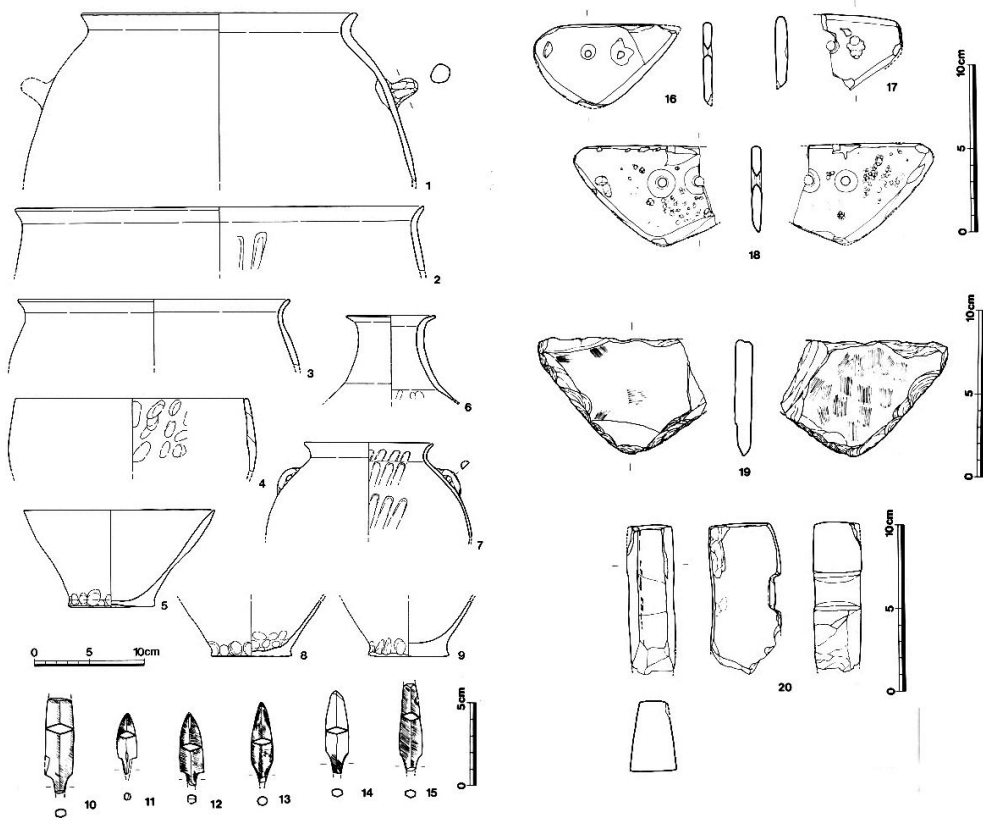
도면 18. 산청 사월리 7호 수혈 및 출토유물

18. 산청 사월리 환호유적²⁸⁾(도면 19)

사월리 환호유적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 소재하며, 배양마을의 서쪽에서 북동-남서향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는 구릉의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약 750m 거리에 산청 사월리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28) 부경대학교박물관, 『山淸 沙月里 環濠遺蹟』, 1998.

조사결과 주거지 9기, 수혈유구 10기, 석관묘 2기, 환호와 그 밖에 삼국시대 집자리, 석실묘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 장방형과 원형으로 구분된다. 환호는 북쪽의 구릉 정상부에는 발굴경계지점으로 절토되어 부분적으로 끊어진 상태이며 주거지를 둘러싼 남쪽이 트인 반원형으로 확인되었다. 동편 환호의 외호가 매몰된 후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1호 석관묘 출토 적색마연토기는 경부가 없이 바로 구연부로 연결되며 짧게 외반한다. 구연부와 경부,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동최대경의 동하위에 있는 것으로 하인수의 소형 V류에 해당한다. 동편환호의 내호에서 출토하고 있는 적색마연토기는 경부가 곡선적으로 내경하며, 구연부와 경계는 뚜렷하나 동체부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대형BIII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차이에 주목된다. 무문양으로 구연부가 짧게 외반하는 호형토기도 출토하고 있다. 내호에서 적색마연과수부토기, 일단경식 석축,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이 출토하고 있다.



도면 19. 산청 사월리 동편환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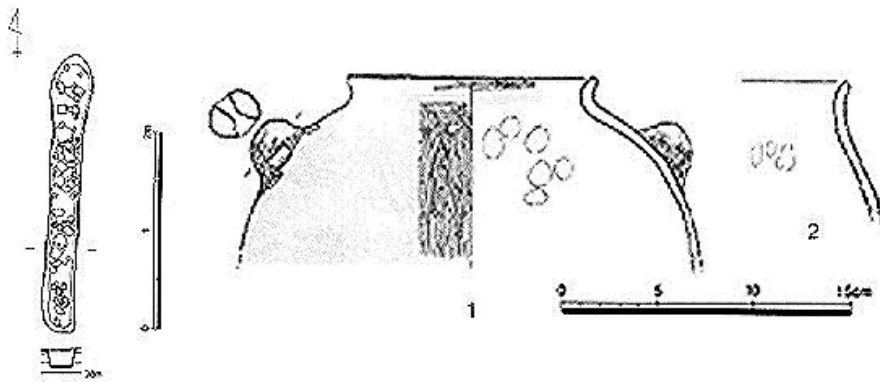
19. 진주 대평리 옥방 1지구유적²⁹⁾(도면 20)

대평리 유적은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에 위치하며, 남강댐 수몰지구에 속하는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의 각종 유구가 유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남강이 크게 곡류하면서 형성된 대규모의 충적지이다. 대평리는 옥방과 어은이라는 2개의 자연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옥방이 크고 넓다.

옥방지구에는 여러겹의 환호를 비롯하여 주거지, 경작지, 분묘, 수혈유구, 고상건물지, 구상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밀집되어있다. 환호는 1겹 또는 2겹으로 되어있고 목책과 공반하기도 한다. 주거지는 방형계의 휴암리형과 원형계의 송국리형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수혈유구는 수백기가 밀집해서 분포하는데, 야외노지, 폐기장, 가마 등 그 성격은 다양하다.

이중 7호 주거지는 말각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내부에는 중앙수혈과 양주혈을 가지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적색마연토기 파수편과 함께 무문토기, 방추차, 석기 등이 출토하였다.

또 115호 수혈은 남북방향으로 길이 285cm, 너비 28~41cm, 깊이 18cm인 구상의 수혈유구이다. 내부에는 10~30cm 정도의 돌이 들어있고,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포함되어있다. 출토유물로는 파수부적색마연호, 호구연부편, 지석이 출토하였다.



도면 20. 대평 옥방 1지구 115호 구상수혈 및 출토유물

29) 國立晉州博物館, 『晉州 大坪里 玉房1地區 遺蹟 I·II』, 2001.

20. 진주 대평 옥방 1·9지구 무문시대 집락유적³⁰⁾

대평리 옥방 1지구는 대평리 751-1번지 일대로 국립진주박물관이 발굴조사한 옥방 1지구의 북쪽 경계와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주거지, 환호, 수혈, 무덤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619호 요는 평면은 兩端部가 둥근 형태를 띤 ‘一’ 자형이며, 단면은 ‘V’ 자형이다. 수혈 벽을 따라 燒粘土 띠가 돌아가고 내부에는 다량의 토기편과 돌들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돌들은 토기편들보다 상부에 놓여 있고, 화기에 노출되어 경도가 매우 약하고 표면이 赤化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방추차, 지석, 연석 등이 출토하고 있다. 이중 적색마연 파수부편이 1점 확인된다.

옥방 9지구는 옥방 1지구의 남서쪽으로 약 200m정도 떨어져 있다. 9지구내의 21호 수혈은 평면 원형으로 바닥은 암갈색토로 다짐하였다. 내부에서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삼각형석도, 어망추 등이 출토하고 있다. 적색마연 파수부편이 1점 확인된다.

21. 창원 상남선사유적³¹⁾

상남선사유적은 경남 창원시 토월동 959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창원분지내의 평지에 입지하는 해발 20m이내의 얇은 구릉지대이다. 조사결과 성격불명의 청동기시대 제사유구 1기와 이중으로 된 환호유구가 확인되었다. 기존 상남지석묘와 함께 인접한 지석묘 5기와 더불어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중 제사유구는 무문토기와 석기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는 자연구상의 유구로 출토된 토기와 석기의 분포 양상으로 보아 일종의 폐기장적인 성격의 유구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파수부발형토기와 호형토기 등의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반월형석도, 일단경식석촉, 석부, 어망추 등이 출토하고 있고, 발형의 적색마연파수편이 1점 출토하고 있다.

또한 이중으로 조성된 환호유구는 서로 260~42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남동방향으로 진행하며 40m 정도가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파수부발형토기와 호형토기 등의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반월형석도, 일단경식석촉, 주상편인석부, 어망추, 관옥 등이 출토하고 있다. 이중 동쪽에 위치한 A溝에서 발형의 적색마연파수편이 1점 출토하고 있고, 서쪽에 위치한 B溝에서는 적색마연 파수

30) 慶南考古學研究所,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時代 集落』, 2002.

31)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昌原 上南先史遺蹟』, 2001.

부편이 1점 출토하고 있다.

이외에 대구 상동 정화 10호 주거지³²⁾, 대구 동호동 7호 구³³⁾에서 적색마연 파수부토기가 출토하고 있다.

32)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대구 수성구 상동 우방아파트 건립부지 내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 2002.

33)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東湖洞遺蹟』, 2003.

III. 적색마연파수부토기 속성분류

이 장에서는 적색마연토기의 속성을 파악하여 그 시간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아직 자료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나 포괄적인 분류를 통해 형식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65점은 적색마연 파수편이 확인된 총 수량이고, 이 중에서 구연부를 포함한 파수가 확인되어 기종파악이 가능한 총 34점을 대상으로 하여 속성파악을 하고자 한다.

속성은 파수의 형태, 기종, 구연부의 형태, 동최대경의 위치, 파수의 부착위치 등을 기준속성으로 파악하고 속성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1. 파수형태

파수형태는 환상파수(環狀把手)와 유상파수(乳狀把手)로 구분된다.

환상파수는 평면형태가 둥글고 단면형태는 대부분이 타원형이다. 중국의 요동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서북부지역인 압록강과 독로강유역에 파수부토기가 있지만 모두 세로로 붙은 파수이고 점토띠를 이용하여 양끝 쪽을 동체에 붙였다.³⁴⁾ 여기에서 대상으로 하는 환상파수는 점토를 동체부에 붙인 후 직경 약 0.2~0.5cm 정도의 도구를 이용하여 횡방향으로 구멍을 뚫었다. 종방향으로 뚫은 것도 확인되지만 대부분이 횡방향으로 구멍을 낸 것이다.

유상파수는 평면형태가 살짝 융기하여 꼭지모양을 하고 있고 단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소량의 점토를 동체에 눌러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하나씩 동체에서 대칭되게 부착되어 2개가 한쌍을 이루고 있다.

이는 남한지역에서의 경우 즐문토기의 기형 중 환상파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진주 상촌리, 부산 동삼동, 양양 오산리에서 확인되며, 유상파수는 다른 기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³⁵⁾ 이들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주거지의

34) 소위 공귀리형토기, 미송리형토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호 또는 용에 횡교상파수, 종교상파수, 입술형파수가 붙는 형태이다.

藤口健二,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 3』, 弥生土器 I, 雄山閣, 1986.

김미경, 『遼東地域 美松里型土器 研究-太子河`渾河`遼河流域을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6.

35) 두만강유역의 나진 초도유적에서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환상파수와 유사한 형태의 환상파수와 유상파수가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은 무문토기로 확인되고 있다.

姜仁旭,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동북한토기의 편년 및 주변 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2, 한국고고학회, 2007. pp.61~64.

평면형태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환상파수를 부착한 적색마연토기는 (장)방형주거지에서 대부분이 출토하고, 원형주거지는 대봉동 3호 출토가 유일하다. 반면, 유상파수를 부착한 적색마연토기는 (장)방형주거지에서도 출토하지만 환상파수가 출토하는 양보다는 적고, 원형주거지에서도 (장)방형주거지에서 출토하는 양과 비슷한 양이 확인된다.

이처럼 주거지 평면형태의 변화에 따른 파수형태의 출토상황을 통하여 환상파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수자체의 기능과 용도를 잃고 퇴화되어 흔적만 남은 것으로 유상파수로 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종

기종은 각 보고서 집필자마다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으로 객관적인 기종과 악이 안 되고 있다. 호는 호, 옹으로 발은 발과 옹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호형토기³⁶⁾로 파악한 것은 높이가 대개 30cm를 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목이 없다 목이 있더라도 매우 짧게 남아있고, 구경은 15cm 내외가 대부분이다. 대상으로 선별한 유물 중 황성동 I-다-13호 주거지 출토품이 장경호로 판단되지만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호로 부르고자 한다.

옹형토기³⁷⁾는 높이가 50cm 이상이고 구경이 35cm 이상으로 매우 큰 기종이다. 깊고 경부가 넓은 기종으로

발형토기³⁸⁾는 최대경이 구경부에 위치하며, 저부로 갈수록 횡경이 줄어들며 바닥이 V자 또는 U자인 토기가 해당된다.

본고에서 호형토기로 분류한 것 중 동천동 26호, 37호 주거지, 5호 수혈, 6호 석관묘, 굴화리 장검 4호 주거지 출토품은 해당 보고서에서는 옹형토기로 분류하고 있지만 기형이 작고 호형토기의 특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호형토기로 분류하였다.

3. 구연부의 형태

구연부의 형태는 호형토기의 경우 하인수³⁹⁾, 後藤直⁴⁰⁾의 분류안을 따랐다.

36) 한국고고미술연구소,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1984, p.22.

37) 한국고고미술연구소,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1984, p.80.

38) 동삼동패총전시관,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2004, 한글그라픽스, p151. 여기에서 구분한 호형토기는 동부와 구분되는 목과 구연이 있는 토기로 동체가 타원형 또는 원형을 띤다. 옹형토기는 구경부가 약간 오므라 들면서 동부가 팽창하며, 목이 짧고 아가리가 넓은 형태로 최대경이 동부에 위치한다.

호는 대부분이 외반하는 형태로 다시 두가지로 구분된다.

외반1은 동체부에서 내경 혹은 직립하는 견부를 가지면서 길게 외반하는 것이다.

외반2는 견부가 없이 동체부에서 짧게 외반하는 것으로 구연부는 짧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며 견부는 축약되어 구연에서 곧바로 동체부로 연결된다. 하인수와 後藤直의 구분에 따르면 외반 1에서 외반 2로의 변화가 상정된다.

발형토기의 경우 직립과 내경하는 구연부가 확인된다. 발의 구연의 형태는 직립에서 내경하는 것으로 변화가 상정된다.⁴¹⁾

4. 동최대경의 위치

동최대경의 위치는 동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하였다. 호형토기에만 해당하는 분류이고 특별한 정형성이나 변화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파수의 부착위치

파수의 부착위치는 상(上)은 파수가 동최대경의 위쪽인 견부 부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 중(中)은 파수가 동최대경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속성들을 이용하여 각 유물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39) 河仁秀, 전제서, 1989. 하인수의 소형 IV, V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40) 後藤直, 「朝鮮南部の 丹塗磨研土器」, 『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考』, 1980. 後藤直의 호IV, V류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41)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 檢丹里마을 遺蹟』, 1995.

표 1. 적색마면파수부토기 속성분류표

연 번	출토유구 속성	파수형태		기종		구연부				동최대경			파수부착 위치		주거지 형태	
		환상	유상	호	발	외반 1	외반 2	직립	내경	상위	중위	하위	상	중	방형	원형
1	황성동 1호 주거지	0		0			0					0	0		0	
2	사월리 동편환호	0		0			0						0			
3	옥방 1지구 115호 구상수혈	0		0			0						0			
4	서변동 43호 주거지	0		0			0						0		0	
5	옥곡동 A-13호 주거지	0		0			0					0		0	0	
6	대봉동 3호 주거지	0		0			0				0?			0		0
7	사월리 7호 수혈	0		0			0									
8	대학리 1호 주거지	0		0				0				0	0		0	
9	진라리 64호 주거지	0		0										0	0	
10	서변동 22호 주거지	0			0			0							0	
11	석장동 5호 주거지	0			0			0							0	
12	시지동 2호 주거지	0			0				0						0	
13	황성동 I-다-13호 주거지		0	0		0					0		0		0	
14	동천동 5호 수혈		0	0		0					0		0			
15	소토리 37호 석관		0	0							0			0		
16	동천동 6호 석관묘	우각형		0		0					0		0			
17	가인리 10호 석관		0	0		0					0		0			
18	동천동하도 I 층②도면344-3		0	0							0		0			
19	동천동하도 I 층③도면344-4		0	0		0							0			
20	동천동하도 I 층④도면344-5		0	0		0							0			
21	굴화리 장검 4호 주거지		0	0			0			0				0	0	
22	황성동 II-다-9호 주거지		0	0			0				0		0		0	
23	동천동 26호 주거지		0	0			0				0		0			0
24	동천동하도 I 층①도면344-2		0	0			0					0	0			
25	대천동 구① 도면16-59		0	0			0						0			
26	대천동 구① 도면16-66		0	0			0						0			
27	대봉동 3호 구② 도면134-7		0	0			0						0			
28	서변동 34호 주거지		0	0			0									0
29	동천동 37호 주거지		0	0					0				0			0
30	신정동 12호 주거지		0	0							0			0	0	
31	마곡리 1호 주거지		0	0											0	
32	대봉동 3호 구① 도면134-3		0		0				0							
33	상남 제사유구		0		0				0							
34	상남 환호(A溝)		0		0				0							

이상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두가지의 유형이 확인된다. 가장 상위의 속성으로서는 파수의 형태로 환상파수를 가지는 것과 유상파수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환상파수를 가지는 것에는 호와 발에서 모두 확인된다. 호에서는 구연부가 짧게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외반2 만이 확인된다. 대학리 1호 주거지 출토품의 경우 직립으로 보이지만 확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발에서는 직립하는 구연부와 내경하는 구연부가 확인된다. 동최대경과 파수의 부착위치에서는 뚜렷한 정형성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도 진라리 64호 주거지 출토품은 이 환상의 파수가 橫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어 대부분이 縱방향으로 부착되어 파수의 투공이 정면에서 확인되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진라리 64호 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로서 진라리 II 단계에 속한다.⁴²⁾ 이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고 床面에서 출토된 목탄을 자료로한 탄소연대를 참고로 하면 B.C. 11세기를 중심연대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상파수를 가지는 것에서도 호와 발이 확인된다. 호에서 구연부의 형태는 두가지 모두가 확인된다. 동체부에서 직립 혹은 내경하는 건부를 가지면서 길게 외반하는 것과 동체부에서 짧게 외반하는 형태가 확인된다. 기종이 확인 안 되는 편으로 동천동 하도 출토품도 외반2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황성동 I-다-13호 주거지 출토품은 장경호로 세분되지만 한 점 만이 확인되고 있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부분류는 부여하지 않는다. 굴화리 장검 4호 주거지 출토품의 경우는 평저로 환상파수를 지니는 대봉동 3호 주거지 출토품의 기형과 비슷하다. 발에서는 내경하는 구연부를 가지는 것으로 상남 제사유구와 환호유구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외에 동천동 6호 석관묘 출토품은 길고 가늘게 위로 약간 말린 우각형파수 1개가 부착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표 2). 대분류는 파수의 형태이고 다음으로 기종을 살피고 나서 구연부의 형태를 구분하였다. 각 기종 내에서의 유형별 출토량은 거의 비슷하나 조사대상 유물 중에서는 II A2유형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I A1유형과 II B1유형에 해당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다.

42) 嶺南文化財研究院, 「IV. 考察」, 『清道 陳羅里遺蹟』, 2005.

표 2. 적색마연파수부토기 유형분류

기종 구연부 파수형태	호 A		발 B	
	외반 1	외반 2	직립 1	내경 2
환상파수 I	I A1	I A2	I B1	I B2
유상파수 II	II A1	II A2	II B1	II B2

IV.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성격

1. 시기적 위치

아래에서는 공반유물을 통하여 시기적인 위치를 설정하고자 한다(표 3).

표 3. 적색마연파수부토기 공반유물 분류표

출토유구 공반유물	무문토기 문양		석검		석촉	석도	석부	
	단순문양	무문양	유절식	일단 병식	일단 경식	삼각형 석도	유구	편평 편인
대봉동 3호 주거지		파수부발형						
대봉동 3호 구	구순6(파수부4)공렬1	파수부발형5						
옥곡동 A-13호 주거지		호형7						0
신정동 12호 주거지		발형1						
마곡리 1호 주거지		발형1			0			
가인리 10호 석관			0	0				
동천동 37호 주거지					0			
황성동 I-다-13호 주거지	횡침선파수발1, 횡침선호2	호3, 발1, 파수부발2			2			
황성동 II-다-9호 주거지	공렬발1, 공렬파수부발1	발1, 파수부발1			0			
석장동 5호 주거지	횡침선파수발1	발형1						
황성동 1호 주거지	횡침선호1 구순각목발1	발형2						0
시지동 2호 주거지					0			
굴화리 장검 4호 주거지								0
사월리 동편환호		발형1			6	0	0	

1) 토기

무문토기의 문양은 복합문→단순문→무문⁴³⁾으로의 변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합문은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가락동식, 구순각목과 공렬문이

43) 李秀鴻,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pp.54~55.

裴眞晟,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48, 韓國上古史學會, 2005, pp.9~10.

千羨幸, 「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복합계문양의 지역색과 변천-」,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 記念論叢』,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 記念論叢 刊行委員會, 용디자인, 2006, pp.258~260.

시문된 역삼동식, 가락동식과 역삼동식이 복합된 혼암리식과 같은 문양요소가 결합된 경우를 말한다. 단순문은 이중구연과 단사선문, 공렬문과 구순각목과 같이 각각 동일계통의 문양이 결합된 경우를 말하는데, 문양이 하나만 단독으로 시문된 경우를 단독문양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이 단독문양은 울산지역의 경우 검단리단계에 와서는 공렬문, 횡선문, 단사선문 등의 문양으로 늦게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무문토기 문양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 적색마연 파수부토기가 출토하는 유구에서는 복합문양의 무문토기는 출토하지 않고 있다(표 3 참조). 단독문양을 주로 하여 단순문양의 무문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문의 파수부발형토기도 일부에서 확인된다.

단사선문과 횡침선문이 시문된 발형, 호형토기와 무문양의 파수부 발형토기는 검단리식토기⁴⁴⁾로 불리우며 울산을 비롯한 동남해안지역의 무문토기시대 중기의 표지적인 유물이다. 한반도 남부지방 전역에 송국리형문화가 파급될 때 동남해안지역에서는 검단리형문화가 시기적·지역적으로 안정적이게 유지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파수부심발형토기가 대구지역권에서도 확인되는데, 울산지역과는 달리 구순각목문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이는 검단리식과는 다른 토기양식으로 동천동식토기로 명명하여 대구지역 중기의 지역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⁴⁵⁾

이처럼 적색마연파수부토기는 무문토기의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소수의 공반 유물로 인해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청동기시대 중기⁴⁶⁾의 시기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석기

공반유물 중 석기로는 일단병식석검, 유절식석검, 일단경식석촉,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이 출토하고 있다.

먼저 일단병식석검, 유절식석검은 가인리 10호묘에서 공반하고 있는데, 직접

44) 李秀鴻, 전게서, 2005, pp.1~2.

45) 裴眞晟, 전게서, 2005, pp.22~25.

46) 송국리문화 단계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중기의 설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4분기설을 따라 조기, 전기, 중기, 후기의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이는 실질적인 청동기가 출현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점토대토기단계)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호서고고학회,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變遷』, 제15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7.

한국청동기학회,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7.

발굴조사 한 박선영은 유절식석검을 이단병식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그의 분류에 따르면 3기로 비정시키고 2기의 송국리문화 단계보다 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⁴⁷⁾

일단경식석촉은 마곡리, 시지동 출토의 석촉은 신부의 단면형태는 능형(菱形)이며, 경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이는 안재호의 IIIa 단계⁴⁸⁾, 김창호 B 단계⁴⁹⁾에 속한다.

그리고 동천동 출토품은 신부의 단면형태는 능형이며, 경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나 검신부의 능이 경부에까지 이른다. 이는 안재호의 IIIb 단계에 속한다. 또한 황성동, 사월리 출토품은 신부의 단면형태는 능형이며, 경부의 단면형태는 육각형이다. 이는 안재호의 IV 단계, 김창호 A단계에 속한다.

이들은 안재호의 4단계 중에서 2, 3단계에 속하고, 김창호의 3군 중에서 늦은 제3군에 속한다.

삼각형석도는 사월리 동편환호와 옥방 9지구 21호 수혈(경고연)에서 유구석부는 사월리 동편환호에서 출토하고 있다. 이들 유물은 송국리단계의 표지적인 유물⁵⁰⁾이다.

이처럼 적색마연과수부토기와 공반하는 석기를 통해보면 전기까지 올라가는 유물을 확인할 수 없다. 대부분이 청동기시대 중기와 유사한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47) 朴宣映,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2004.

48) 安在皓,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pp.2~4.

49) 金昌鎬, 「有柄式石劍 型式 分類 試論」, 『歷史教育論集』 2,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歷史科, 1981, pp.69~70.

50) 孫峻鎬,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考古學專攻 博士學位論文, 2006, p.80.

2. 성격

1) 지역성

여기에서는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출토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무문토기 중기에 들어서면 발, 웅, 호형으로 일관하던 무문토기의 기형에 적색마연토기가 다양한 기종으로 구성되면서 지역마다의 강한 지역권의 설정이 가능해지고 있다. 적색마연 플라스크형토기의 경우는 송국리유적에서 집중하여 출토하고 있고,⁵¹⁾ 적색마연 횡침선문완은 남강수계를 중심으로 하여 분포권역을 보이고 있다.⁵²⁾ 또한 내경외반하는 적색마연원저호의 경우는 경남 함안지역의 분묘에서 집중적으로 출토하고 있다.⁵³⁾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출토예가 확인되고 있어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역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적색마연파수부토기는 한반도의 동남부지역에서의 지역성이 인정된다. 이 적색마연파수부토기는 한반도의 동남부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여 송국리 22호 주거지에서 적색마연파수부토기가 1점 출토하고 있으나 이는 말각원저의 호형토기이고 환상의 파수도 각이져 있어 동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형태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적색마연원저호의 영남지방과 비영남지방과의 출토량을 확인하여 보면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⁵⁴⁾ 이런 의미에서 적색마연파수부토기도 대부분이 원저호라는 점이 이런 지역적인 집중도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적색마연파수부토기는 한반도 동남부지역을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남내륙지역(낙동강중류역)과 경남서부지역(남강유역)에서는 주거지를 비롯하여 석관묘, 수혈, 요, 환호, 구상유구 등의 다양한 유구에서 적색마연파수부토기가 출토하고 있다.

51) 宋滿榮, 전게서, 1995, pp.44~50.

52) 高旻廷, 전게서, 2005.

53) 金惠珍, 裴眞晟, 전게서, 2005.

54) 宋永鎮, 전게서, 2006, pp.52~53.

한편 동남해안지역의 경주 황성동, 울산 굴화리 장검, 신정동 유적에서는 주거지내에서만 적색마연파수부토기가 출토하고 있다. 이는 검단리식토기가 출토하는 분포권⁵⁵⁾내에 위치하고 있어 검단리문화와의 관련성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동북형석도⁵⁶⁾가 공반하여 출토하고 있다. 이 동북형석도는 동북지역과 동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을 동해문화권으로 설정하고 원추형방추차, 성형석부⁵⁷⁾, 파수부심발형토기 등과 함께 영동·영남지역과 동북지역과의 문화적 계통을 같이하는 물질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적색마연토기는 일찍이 한반도 동북지방의 두만강유역과의 관련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⁵⁸⁾ 일례로 두만강 유역의 웅기 송평동에서 적색마연파수부토기가 출토⁵⁹⁾하고 있다. 이는 청도 진라리 64호 주거지에서 출토한 것과 비슷한 횡방향으로 부착한 파수의 형태이지만 기종에서는 발형이고 구연부는 내경한다.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북한지역 고고자료의 보고와 연구성과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적색마연파수부토기도 동북지역의 영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지역성이 적색마연토기가 가지는 제의적 기능⁶⁰⁾으로서 제의권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싶다. 적색마연토기가 가지는 토기자체의 기술적 특성인 얇은 기벽, 이 얇은 기벽에다 가하는 섬세한 마연조정, 정선된 점토의 사용, 원저의 기형, 파수의 부착, 내면에는 마연을 하지 않아 태토가 그대로 드러나

55) 울산~경주~포항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의 동남해안지역을 말한다.

裴眞晟, 전게서, 2005, pp.17~22.

李秀鴻, 전게서, 2005, pp.82~86.

김현식,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주거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54, 韓國上古史學會, 2006, pp.54~64.

56)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흡사 나이프와 같은 모양의 석기를 일컫는다. 경주 황성동과 울산 굴화리 장검유적에서 출토하고 있다.

裴眞晟,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40, 嶺南考古學會, 2007, p.24.

57) 李秀鴻, 崔承希, 「4. 星形斧」, 『蔚山 新亭洞 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2003.

58) 적색마연토기는 공열문토기와 함께 동북한 지역에 기원을 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李白圭, 「京畿道 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 第三輯, 韓國考古學會, 1974.

安在皓, 「赤色磨研土器의 出現과 松菊里式土器」, 『韓國農耕文化의 形成』, 학연문화사, 2002.

裴眞晟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嶺南考古學會, 2003.

姜仁旭, 전게서, 2007.

59) 裴眞晟, 「豆滿江流域 無文土器의 實相」, 『嶺南考古學』 42, 嶺南考古學會, 2007, p.80.

60) 이외에 실용성, 상징성 등의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본고에서는 지역성과 관련하여 제의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서 식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문토기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의 기능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 속에 내용물을 보관하고 무덤에 부장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제의적 기능에 의해 형태적으로 강한 전통성이 유지되어 각 기종을 중심으로 하는 제의권이 설정되는 듯하다. 이에 기종마다의 제의집단이 상정되고 그곳에 따른 제작장인에 의해 관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의적 성격

적색마연토기가 祭儀用⁶¹⁾ 토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무덤의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예가 많아 제의용기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원저호는 기벽이 얇고 태토가 정선되었으며 축약된 저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상용기인 무문토기와는 구분된 정제토기로서 역시 제의용기라고 생각된다. 원저호는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경우도 있으나, 무덤에 부장되는 용기로서 항상 선택되고 있다.⁶²⁾

양산 소토리 37호, 밀양 가인리 10호, 대구 동천동 6호 석관묘에서 출토하고 있는 적색마연파수부호도 모두 제의용의로 사용된 것이다. 밀양 가인리 10호 석관묘에서는 유절식석검 1점, 일단병식석검 1점이 출토하고 있고, 대구 동천동 6호 석관묘에서는 석촉편이 출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덤부장용으로 채택되고 있는 다른 유물을 살펴보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소중한 의미를 지니며 석검과 석촉의 경우는 좌우 대칭이 요구되는 고난이도의 제작기술을 요한다. 적색마연파수부토기 역시 일반적인 용기가 아니라 태토선정에서부터 마연하며 소성하는 제작까지 섬세한 작업을 요한다. 그리고 사용시에도 기벽이 얇아 일상용기 보다 정성을 들여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제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거창 산포, 합천 저포리 E지구 등의 지식묘

61) 제의는 의례를 수행하는 과정의 행동이나 말, 의식을 가리킨다. 의례라고 하면 인간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超越의인 힘에 의지하거나 그 힘에 대한 공포를 떨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겠다. 이상길,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2~4.

62)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시대편』, 2004, p.248.

의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출토하는 무문토기도 있다. 하지만 매장주체부 속에 무문토기가 부장되는 예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의행위가 일어 날 수 있는 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 동천동 5호 수혈에서는 적색마연 유상파수부호가 출토하고 있다. 이 수혈은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깊이 8.5cm로 내부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이 적색마연 유상파수부호 한 점만이 매납된 채 출토하고 있다. 유구의 깊이로 보아 유물을 안치하고서도 유물은 지표면보다 높게 쏠아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평면 크기를 살펴보면 유물을 안치하고서도 공간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하면 유물을 단독으로 매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동의 공간에서 어느 누구나가 인식할 수 있는 유물을 모셔 놓고 그 주위에서 제의가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산청 사월리 제 7호 소형구덩이의 내부에서는 적색마연 환상파수부호 구연부편 1점, 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 유경식석검편 1점, 지석 2점, 방추차 1점, 석재 3점이 출토하고 있다. 이 소형 수혈은 깊이가 낮아 유물의 이동을 가정할 수 있겠지만 해발이 높은쪽으로 9m 거리에 15호 원형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거리상 9m나 떨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끌려들어 왔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진주 대평 옥방 1지구 115호 구상수혈에서는 적색마연 환상파수부호 구연부편 1점, 호 구연부편 1점이 출토하고 있다. 수혈의 바닥에는 10~30cm 정도의 돌이 들어있고,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돌이 끌려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굴착된 수혈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옥방 9지구 21호 수혈은 평면 원형으로 내부에서 적색마연 환상파수편 1점, 발 6점과 무문토기편, 삼각형석도 1점, 어망추 4점과 석기박편 등이 출토하고 있다. 수혈의 바닥은 암갈색토를 5cm 내외로 전면에 단단하게 깔았고 내부토에서는 소량의 목탄과 소토가 확인된다. 이 수혈 주위로는 여러개의 수혈이 확인되는데, 남동-북서방향으로 늘어선 수혈을 중심으로 일정 공간을 두고 서쪽으로는 발, 동쪽으로는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개별 수혈의 용도, 기능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으나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의례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적색마연파수부토기는 무덤에 부장되는 등의 용도로 쓰이며 주거지 내부와 수혈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다른 기종의 적색마연토기와는

달리 부장용으로 사용되며 祭祀方式⁶³⁾과 祭場⁶⁴⁾은 주거지 내부 혹은 수혈 등의 서로 다른 방식과 장소에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나 적색마연과수부토기를 가진 집단이나 사회적인 기능은 기종을 달리하면서 동남부지역(영남지역)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63) 제사방식은 행위라는 측면에서 投棄, 埋納, 廢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병하, 「고대의 항해제사」 『고고자료로 본 고대 제사』, 제10회 복천박물관 학술세미나, 복천박물관, 2006, pp.40~41.

64) 제장은 장소, 지형, 항해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나 장소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유병하, 전 계서, 2006, pp.38~40.

V. 맺음말

이상으로 적색마연파수부토기가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집중하여 출토하는 것을 밝혀 지역성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파수를 중심으로 환상파수와 유상파수로 구분하여 보았다. 아래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출토유적을 소개함에 있어 방형주거지, 원형주거지, 석관묘, 수혈, 요, 환호, 구상유구, 하도 등의 다양한 유구에서 확인되는 적색마연파수부토기를 살펴보았다. 이는 한반도 동남부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장에서는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속성을 파수의 형태, 기종, 구연부의 형태, 동최대경의 위치, 파수의 부착위치 등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분류를 행하였다. 파수는 환상파수와 유상파수가 확인되며, 기종은 호와 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연의 형태는 호의 경우 외반하는 것으로 두가지 형태가 확인되고, 발의 경우 직립과 내경하는 형태가 확인되었다. 동최대경의 위치와 파수의 부착위치에서는 뚜렷한 정형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들을 조합하면 적색마연 환상파수부토기와 유상파수부토기로 대별된다. 먼저 환상파수부토기의 호에서는 구연부가 짧게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I A2)만이 확인되고, 발에서는 구연부가 직립하는 형태(I B1)와 내경하는 형태(I B1)가 확인된다. 그리고 유상파수부토기의 호에서는 구연부가 동체부에서 직립 혹은 내경하는 견부를 가지면서 길게 외반하는 형태(Ⅱ A1)와 동체부에서 짧게 외반하는 형태(Ⅱ A2)가 확인된다. 발에서는 구연부가 내경하는 형태(Ⅱ B2)만이 확인되었다.

Ⅳ장에서는 먼저 적색마연파수부토기의 시기적 위치를 공반유물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무문토기의 경우 단순문과 무문의 문양구성을 가지고 있다. 문양구성은 동남해안 지역권에서는 단사선문과 횡침선문이 시문된 발형, 호형토기와 무문양의 파수부 발형토기가 그리고 대구지역권에서는 구순각목문이 일부 잔존하고 있는 무문양의 파수부 발형토기가 확인된다. 이들은 검단리식토기, 동천동식토기로 불리우며 송국리문화 단계로 위치지어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석촉의 경우는 일단경식석촉만이 확인되며 신부의 단면 형태는 제형이며 경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 혹은 육각형으로 늦은 요소들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송국리단계의 표지 유물인 유구석부와 삼각형석도도 적색마연파수부토기와 공반하여 출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적색마연파수부토기는 한반도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지역성은 제의적 성격과 맥을 같이하여 적색마연토기의 기종에 따른 제의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색마연파수부토기 역시 제의용기로서 석관묘에 부장되고 수혈을 이용한 제사의 공간이 설정되어 진다. 이러한 적색마연 파수부토기의 사회적기능이나 집단의 상징, 의례의 양식이 한반도 동남부지역(영남지역)이라는 지역으로 한정 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적색마연토기는 유물의 출토에서부터 수습, 복원, 보고에 이르기까지 기종의 특성상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로 정확한 보고의 미비와 발굴자료의 빈약으로 인한 소수에 불과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억측과 불분명한 추정만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자체의 형식학적 구분이 세밀하지 못하였으며 공반유물을 통한 연대 보정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적색마연파수부토기가 가지는 청동기시대내에서의 의미파악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

1. 論文 및 著書

1) 國內

姜秉學, 「한반도 선사시대 굽다리토기 연구」, 『古文化』 第66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2005.

姜仁旭,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동북한토기의 편년 및 주변 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2, 한국고고학회, 2007.

김권구,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2005.

김미경, 『遼東地域 美松里型土器 研究-太子河`渾河`遼河流域을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6.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1986.

金昌鎬, 「有柄式石劍 型式 分類 試論」, 『歷史教育論集』 2,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歷史科, 1981.

盧懋眞, 「紅陶」, 『韓國史論』 17, 國史編纂委員會, 1987.

朴宣映,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2004.

朴榮九, 『嶺東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論文, 2000.

裴眞晟,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嶺南考古學會, 2003.

_____,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48, 韓國上古史學會, 2005.

_____,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40, 嶺南考古學會, 2007.

_____, 「豆滿江流域 無文土器의 實相」, 『嶺南考古學』 42, 嶺南考古學會, 2007.

孫峻鎬,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考古學專攻博士學位論文, 2006.

宋滿榮,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性格-西南韓地方을 中心으로-」,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宋永鎭, 「韓半島 南部地域의 赤色磨研土器 研究」, 『嶺南考古學』 38, 嶺南考古

- 學會, 2006.
- 申鍾煥, 「金陵 松竹里遺蹟」, 『嶺南考古學』 7, 嶺南考古學會, 1990.
- 安在皓,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 _____,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韓國考古學會, 2000.
- _____, 「赤色磨研土器의 出現과 松菊里式土器」, 『韓國農耕文化의 形成』, 학연문화사, 2002.
- _____,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6.
- 유병하, 「고대의 항해제사」 『고고자료로 본 고대 제사』, 제10회 복천박물관 학술세미나, 복천박물관, 2006.
- 尹武炳, 『韓國靑銅器文化研究』, 藝耕産業社, 1991.
- 尹世英, 「無文土器의 整面手法에 關하여」, 『韓國上古史學報』 17, 韓國上古史學會, 1994.
- 李白圭, 「京畿道 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 第三輯, 韓國考古學會, 1974.
- _____, 「漢江流域 前半期 민무늬토기의 編年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2, 嶺南考古學會, 1986.
- 李相吉, 『靑銅器時代 儀禮에 關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카톨릭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 李秀鴻,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 이용조·신숙정, 「제원 황석리유적 출토의 붉은간토기와 가지무늬토기의 고찰」,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고고학편』,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7.
- 李清圭,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第一號, 韓國上古史學會, 1988.
- _____, 「嶺南지역의 靑銅器에 대한 論議와 解釋」, 『嶺南考古學』 30, 嶺南考古學會, 1997.
- 李亨源, 『韓國 靑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 이홍중, 「무문토기가 弥生토기 성립에 끼친 영향」, 『청동기문화의 새로운 연구』, 한국고대학회 2000년 춘계학술회의 발표요지, 한국고대학회, 2000.

李熙濬, 「新羅考古學 方法論 序設」, 『韓國考古學報』 37, 韓國考古學會, 1997.

林炳泰, 「韓國 無紋土器의 研究」, 『韓國史學』 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鄭澄元, 「新石器時代 丹塗磨研土器에 對한 一考察 - 南海岸地方 貝塚出土品을 中心으로」, 『釜大史學』 4, 釜大史學會, 1980.

千羨幸, 「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복합계문양의 지역 색과 변천-」,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 記念論叢』,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 記念論叢 刊行委員會, 용디자인, 2006.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한국청동기학회,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7.

韓永熙, 「角形土器考」, 『韓國考古學報』 14-15집, 韓國考古學會, 1983.

黃炫眞, 『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研究-東南海岸 無文土器文化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2004.

호서고고학회, 『湖西地域 靑銅器時代 聚落의 變遷』, 제15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7.

2) 國外

大貫靜夫,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論をめぐって」,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第二,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1996.

藤口健二,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 3』, 弥生土器 I, 雄山閣, 1986.

後藤直, 「朝鮮南部の 丹塗磨研土器」, 『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考』, 1980.

2. 報告書 및 資料

慶南考古學研究所,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時代 集落』,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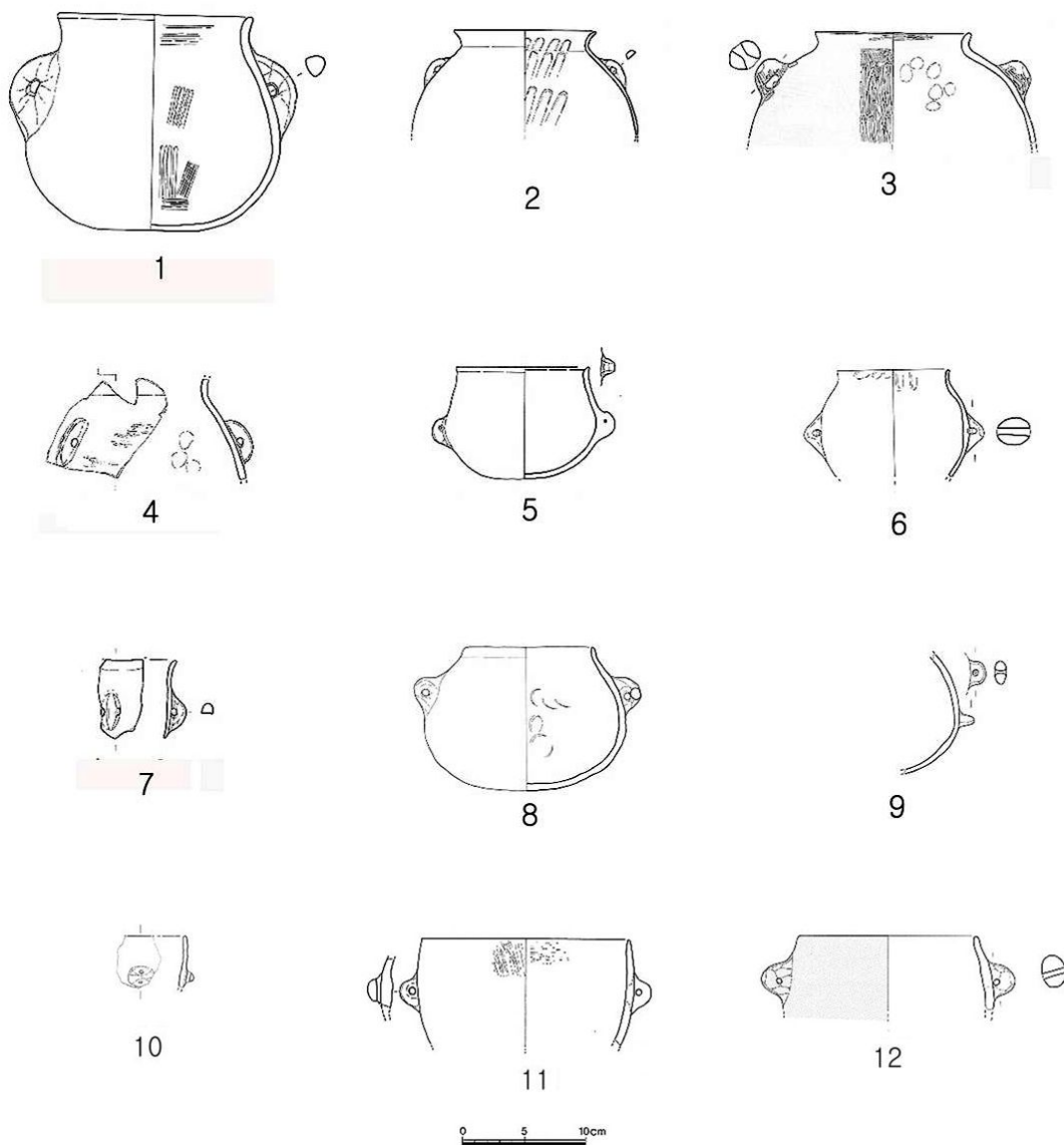
_____,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集落』, 2005.

_____, 『咸安 地域 調査』, 2005.

慶尙大學校博物館, 『晉州 大坪里 玉房 2地區 先史遺蹟』, 1999.

- _____, 『晉州 大坪里 玉房 3地區 先史遺蹟』, 2001.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대구 수성구 상동 우방아파트 건립부지 내 上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 2002.
- _____, 『대구 수성초등학교 부지 내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 2004.
- _____,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河陽 大鶴里·瓦村 東江里遺蹟-』, 2005.
- _____, 『大邱 大鳳洞 마을遺蹟』, 2006.
- 慶州大學校博物館, 『大邱 大泉洞 現代 홈타운 新築敷地 內 發掘調査報告書』, 2007.
- 啓明大學校博物館, 『慶州 隍城洞 遺蹟 V』, 2000.
- 국립김해박물관, 『전환기의 선사토기』, 도서출판 용 디자인, 2005.
-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20주년기념-발굴유적과 유물 도록』,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시대편』, 2004.
- 國立中央博物館, 『韓國의 先·原史土器』, 1993.
- 國立晉州博物館, 『晉州 大坪里 玉房1地區 遺蹟 I·II』, 2001.
- _____,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2002.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昌原 上南先史遺蹟』, 2001.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錫杖洞遺蹟』, 1996.
- _____, 『錫杖洞遺蹟 II』, 1998.
- _____, 『錫杖洞遺蹟 III』, 2002.
- _____, 『大邱 松峴洞 先史遺蹟』, 2002.
- 동삼동패총전시관,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2004, 한글그라픽스.
- 東亞大學校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 發掘圖錄』, 1999.
- 東儀大學校博物館, 『山淸 沙月里遺蹟』, 1999.
- 文化財研究所, 『晉陽 大坪里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994.
- 密陽大學校博物館·(社)慶南考古學研究所, 『佳仁里遺蹟』, 2004.
- 부경대학교박물관, 『山淸 沙月里 環濠遺蹟』, 1998.
-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 檢丹里마을 遺蹟』, 1995.
-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東川洞聚落遺蹟』, 2002.
- _____, 『大邱 西邊洞聚落遺蹟 I』,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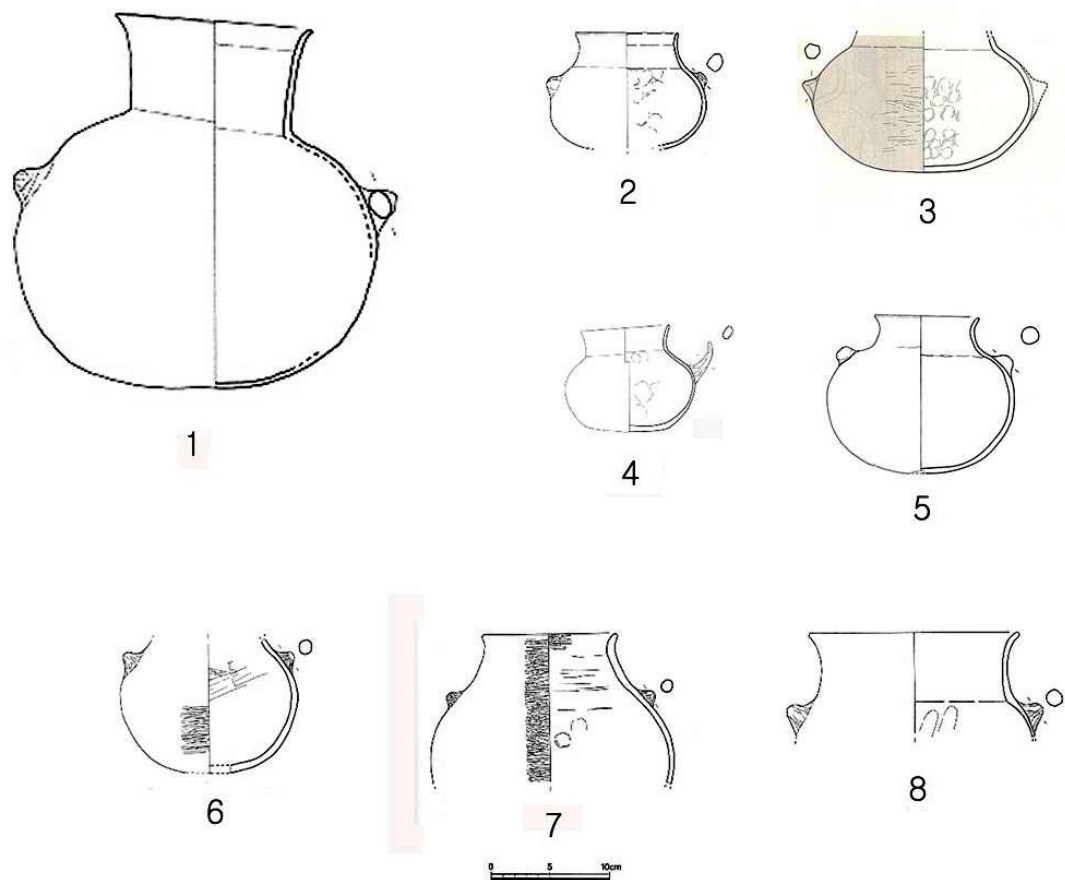
- _____, 『大邱 東湖洞遺蹟』, 2003.
- _____, 『大邱 辰泉洞遺蹟』, 2003.
- _____, 『大邱 時至洞 60-1番地遺蹟』, 2004.
- _____, 『清道 陳羅里遺蹟』, 2005.
- _____, 『慶山 麻谷里遺蹟』, 2005.
-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 新亭洞 遺蹟』, 2003.
- _____, 『蔚山屈火里長劍遺蹟 I』, 2005.
- _____, 『蔚山屈火里長劍遺蹟 II』, 2006.
- 李亨求, 『晉州 大坪里 玉房5地區 先史遺蹟』, 鮮文大學校, 2001.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1984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隍城洞 950-1·7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2005.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慶山 玉谷洞 遺蹟 I』, 2005.



도면 21. 적색마연 환상과수부토기(S=1/6)

1~9; IA2유형, 10~11; IB1유형, 12; IB2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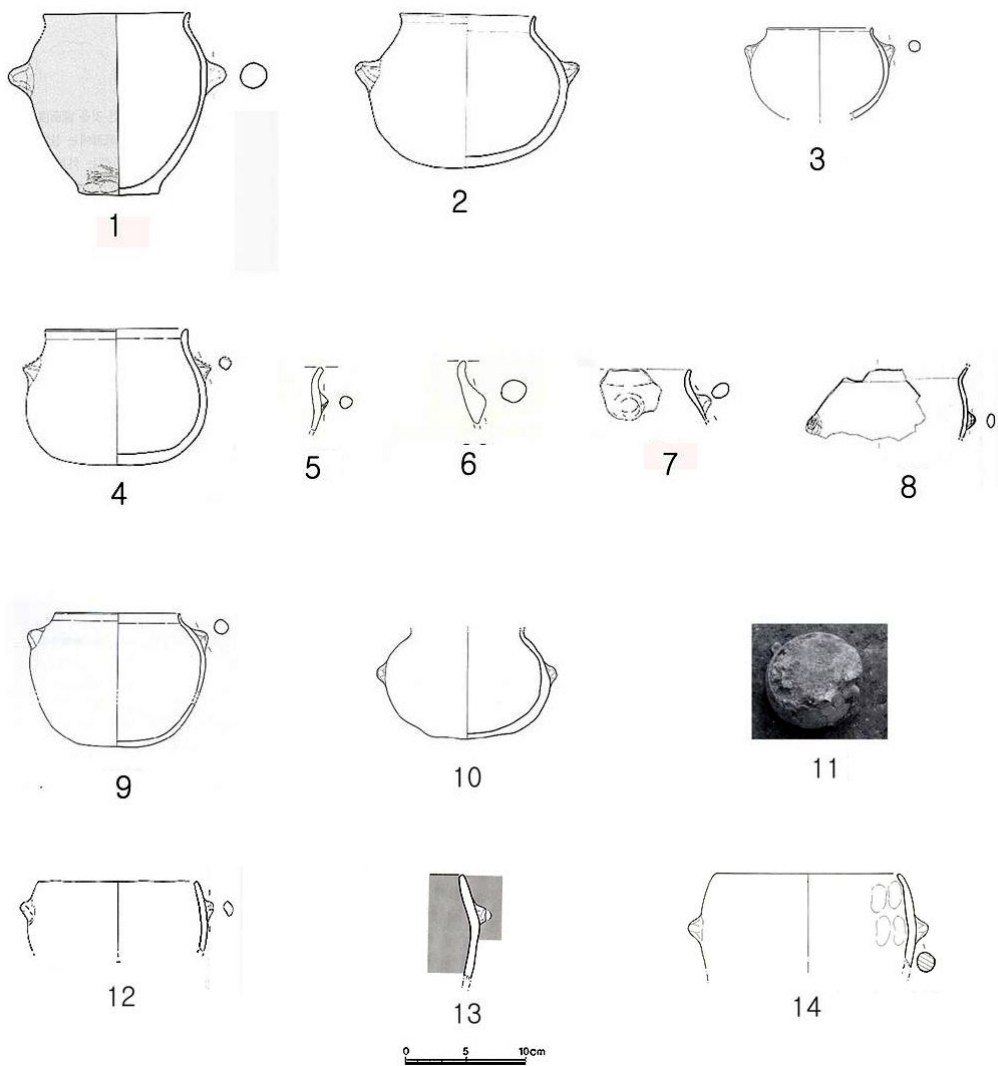
1. 황성동 1호 주 2. 사월리 동편환호 3. 옥방 1지구 115호 구상수혈 4. 서변동 43호 주
5. 옥곡동 A-13호 주 6. 대봉동 3호 주 7. 사월리 7호 수혈 8. 대학리 1호 주
9. 진라리 64호 주 10. 서변동 22호 주 11. 석장동 5호 주 12. 시지동 2호 주



도면 22. 적색마연 유상파수부토기(S=1/6)

1~8; II A1 유형

1. 황성동 I-다-13호 주 2. 동천동 5호 수혈 3. 소토리 37호묘 4. 동천동 6호묘
5. 가인리 10호묘 6~8. 동천동 하도



도면 23. 적색마연 유상파수부토기(S=1/6)

1~11; II A2 유형, 12~14; II B2 유형

1. 굴화리 장검 4호 주 2. 황성동 II-다-9호 주 3. 동천동 26호 주 4. 동천동 하도
5~6. 대천동 구 7. 대봉동 3호 구 8. 서변동 34호 주 9. 동천동 37호 주
10. 신정동 12호 주 11. 마곡리 1호 주 12. 대봉동 3호 구 13. 상남 제사유구
14. 상남 환호(A溝)

표 4. 검토대상 (장)방형주거지 속성표

유구	평면 형태	규모(cm)			장폭 비	면적 (㎡)	등고선과 장축방향	주혈		노지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기둥	잔존 주혈			
신정동 12호 주거지	(말각장 방형)	298	(102)	20	-	(3.0)	-	-	-	-	심발1, 적색마연1, 석기1	
굴화리 장검 4호 주거지	(장방형)	(290)	(326)	27	-	(9.4)	-	4	1	수혈식1	적색마연1, 석부1	
황성동 1호 주거지	장방형	430	310	30	1:1.4	13.3	북동-남서	4주식	11	수혈식1	호4, 발2, 적색마연3, 석기	상면 불다짐
시지동 2호 주거지	장방형	378	299	15	1:1.3	11.3	N8° E, 평행	4주식	-	수혈식1	적색마연2, 무문토기, 석축1, 석부1	상면 불다짐
대학리 1호 주거지	방형	450	364	23	1:1.2	16.3	N68° E, 평행	-	-	수혈식1	적색마연1, 무문토기, 방추차1	상면 불다짐
진라리 64호 주거지	장방형	469	307	23	1:1.5	14.4	N14° W	-	12	수혈식1	무문토기4, 적색마연3	화재폐기
옥곡동 A-13호 주거지	장방형	(350)	290	27	-	(10.1)	남-북	-	-	수혈식1	무문토기, 적색마연3, 석부1, 방추차4	화재폐기
황성동 I-다- 13호 주거지	장방형	590	470	25	1:1.3	27.7	북서-남동 , N58° W	6주식	-	수혈식1	호8, 심발5, 적색마연1, 석축2	화재폐기
황성동 II-다- 9호 주거지	장방형	550	408	26	1:1.3	22.4	북동-남서 , N39° E	6주식	-	수혈식1	심발4, 적색마연5, 석축1	화재폐기
서변동 22호 주거지	장방형	416	210	44	1:2	8.7	N51° W	-	-	-	적색마연1, 석창1, 석기	바닥에 혼펠스가루
서변동 43호 주거지	방형	357	321	11	1:1	11.4	-	-	-	수혈식1	무문토기2, 적색마연1, 석기	
마곡리 1호 주거지	장방형	490	350	(20)	1:1.4	17.1	-	-	2	수혈식1	심발, 적색마연1, 유경석축1, 석도1	화재폐기

유구	평면 형태	규모(cm)			장폭 비	면적 (㎡)	등고선과 장축방향	주혈		노지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기둥	잔존 주혈			
석장동 5호 주거지	(방형)	(634)	(154)	-	-	(9.7)	N86° E, 평행	(4주식)	-	-	파주부심발2, 적색마연1, 심발1,연석1	상면 불다짐 화재폐기
상동 정화 10호 주거지	방형	440	370	22	1:1.2	16.2	N80° W	-	-	수혈식1	무문토기, 적색마연1, 석도	

* ()는 잔존치 및 잔존형태

표 5. 검토대상 송국리형주거지 속성표

유구	평면 형태	규모(cm)			면적 (㎡)	노지	중앙수혈 +양주혈	중앙 수혈	양쪽 주혈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동천동 26호 주거지	원형	515	460	33	20.7	-	○	-	-	무문양발, 적색마연3, 어망추1, 석기	
동천동 37호 주거지	원형	410	385	40	13.2	-	-	-	○	무문양발1, 적색마연1, 유경식축1,석기	
동천동 21호 주거지	원형	490	442	42	18.8	-	-	-	○	무문토기, 적색마연1, 어망추, 석기	
서변동 34호 주거지	말각 방형	397	380	36	13.8	-	-	-	○	무문토기5, 적색마연2, 석검, 석기	
옥방1지구 7호주거지 (진주박)	말각 방형	450	-	6		-	○	-	-	무문토기, 적색마연, 방추차, 석기	
진라리 49호 주거지	(말각장 방형)	(399)	(357)	23	14.2	-	○	-	-	적색마연2, 무문토기, 석기	
대봉동 3호 주거지	원형	480		54	18.0	수혈식1	-	-	-	무문토기14, 적색마연6, 어망추, 석기	

* ()는 잔존치 및 잔존형태

* 송국리형주거지에는 평면형태에 관계없이 타원형주거지가 설치된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형주거지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표 6. 검토대상 석관묘 속성표

유구	묘광			석관						개석	출토유물	비고
	규모(cm)			규모(cm)			시상석	벽석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단수	축조방법			
가인리 10호 석관	228(1단) 223(2단)	183(1단) 150(2단)	66 ~ 29	158	55	80	무	8	縱平積· 橫平積	4매 (3단)	일단병식1, 유절식1, 적색마연1	
소토리 37호 석관	204	137	48	140	50	48	무	4	縱平積· 橫平積	무	적색마연1	원형주거지와 중복
동천동 6호 석관	177	80	30	127	30	25	무	1	臥垂積	무	적색마연1, 석촉1	

표 7. 검토대상 기타유구 속성표

유구	평면 형태	규모(cm)			면적 (㎡)	내부 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대천동 구상유구	— 자형	515	460	33	—	무	무문토기, 적색마연, 방추차	자연형성
동천동 하도	ㄱ 자형	19000	700 ~ 1300	—	—	돌	무문토기, 적색마연, 석촉, 석도, 석부, 매부리형석기, 지석 등	자연형성
동천동 집수지 2호	부정형	2000	800	90	—	—	무문토기, 적색마연, 미완성석기 등	
옥방1지구 115호 구상수혈(진주박)	— 자형	285	28 ~ 41	18	0.7	돌	적색마연1, 무문토기1	
옥방 1지구619호 요(경고연)	— 자형	620	60 ~ 65	70	—	—	무문토기, 적색마연, 방추차, 석기	
옥방 9지구21호 수혈(경고연)	원형	195	—	47	—	—	무문토기, 적색마연, 어망추, 삼각형석도	상면다짐
사월리 7호 수혈	장방형	210	147	19	3.1	무	적색마연1, 무문토기1, 석검1, 지석2, 방추차1	상면 생토면
대봉동 3호 구	— 자형	1850	190	—	—	자갈	무문토기, 적색마연, 석기	4호 구 내부에 형성
대봉동 4호 구	— 자형	4000	400	—	—	돌	무문토기, 적색마연, 방추차, 석촉, 석부, 석도 등	
동호동 7호 구	八 자형	3400, 4400	180 ~ 300	60	—	—	무문토기, 적색마연, 어망추, 방추차, 석촉, 석도 등	

유구	평면 형태	규모(cm)			면적 (㎡)	내부 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사월리 동편환호	一 자형	5800	180 ~ 300	120	-	내호에 서유물 출토	무문토기, 적색마연, 석촉, 석도, 석검, 석부, 어망추, 방추차, 연석	석관묘와 중복
상남 제사유구	부정형	4000	4000	-	-	-	과수부발, 무문토기, 적색마연, 반월형석도, 일단경식석촉, 석부, 어망추	
상남 환호	一 자형	4000	220 ~ 240 (A溝) 130 ~ 150 (B溝)	60 50	-	-	과수부발, 무문토기, 적색마연, 반월형석도, 일단경식석촉, 주상편인석부, 어망추, 관옥	
동천동 5호 수혈	원형	100		8.5	0.7	무	적색마연1	

표 8. 검토대상 적색마연 乳狀과수부토기 현황표 (단위 : cm)

구분 출토유구	口徑	現高	胴最 大徑	器壁 두께	把手			외면색조
					높이	너비	단면	
신정동 12호 주거지	·	(9.5)	14.2	0.8	0.8	2.2	원형?	·
황성동 I-다-13호 주거지	16	31	30.2	0.6	2.5	4.5	타원형	붉은색
황성동 II-다-9호 주거지	11.5	12	17	0.75	1.3	2.2	원형?	적색
가인리 10호 석관	8.8	13.4	15.7	0.6	1.0	2.8	원형	적갈색
동천동 26호 주거지	9	(7.8)	11.8	0.5	1.0	2.8	원형	적갈색
동천동 37호 주거지	10.6	(10.4)	15.0	0.5	0.8	2.6	원형	적갈색
동천동 21호 주거지	·	(5.8)	·	0.4	1.2	2.8	원형	적갈색
동천동 5호 수혈	8.6	(7.7)	13	0.4	0.6	2.0	원형?	적갈색
동천동 6호 석관묘	7.5	8.9	11	0.4	3.0	2.0	타원형	적갈색
동천동하도 I 층① 도면344-2	(11.8)	11.6	15.2	0.6	(1.0)	(2.8)	원형	적갈색, 흑색
동천동하도 I 층② 도면344-3	·	(11.3)	15	0.5	1.1	2.8	원형	적갈색, 흑색
동천동하도 I 층③ 도면344-4	(11.2)	(12.7)	(20.6)	0.5	0.9	2.2	원형	적갈색, 흑색

구분 출토유구	口徑	現高	胴最 大徑	器壁 두께	把手			외면색조
					높이	너비	단면	
동천동하도 I 층④ 도면344-5	(17.4)	(8.8)	·	0.5	1.4	3.2	원형	적갈색
동천동하도 I 층⑤ 도면347-12	·	(5.6)	·	0.6	0.6	2.4	원형	등색
동천동하도 I 층⑥ 도면347-13	·	(5.0)	·	0.7	1.0	3.0	원형	적갈색
동천동 집수지 2호 Ⅲ층① 도면303-20	·	(5.2)	·	0.6	1.2	2.2	타원형	적갈색
동천동 집수지 2호Ⅲ층② 도면303-22	·	(6.8)	·	0.6	1.2	2.8	타원형	적갈색
서변동 34호 주거지	·	(5.1)	·	0.4	0.7	1.6	타원형	등색, 회갈색
마곡리 1호 주거지	·	(2.2)	·	·	·	·	·	등색
소토리 37호 석관	·	(11.6)	18.8	0.6	1.2	3.2	육각형?	·
대천동 구① 도면16-59	·	(5.5)	·	0.6	0.6	2.4	원형	5YR5/8, 7.5YR7/6
대천동 구② 도면16-66	·	(5.4)	·	0.8	(0.9)	(3.4)	원형	7.5YR7/6
대천동 구③ 도면19-110	·	(3.8)	·	0.5	0.9	(2.2)	원형	5YR6/8, 10YR4/2
대천동 구④ 도면19-111	·	(5.0)	·	0.5	1.1	2.8	원형	5YR5/8, 7.5YR7/8
대천동 시굴	·	(2.6)	·	0.3	1.0	1.2	원형	5YR6/8, 7.5YR7/6
대천동 A1-O	·	(2.9)	·	0.4	1.0	2.2	원형	5YR5/8, 10YR7/6
대천동 A2-O	·	(6.0)	·	1.0	(1.4)	·	·	5YR6/8, 10YR6/6
대천동 A2-B	·	(3.2)	·	0.6	1.2	(2.5)	타원형	10YR8/2, 5YR6/6
대봉동 3호 구① 도면134-3	13.0	5.8	15.2	0.6	0.8	2.0	원형	적갈색
대봉동 3호 구② 도면134-7	·	4.4	·	0.4	1.0	2.0	타원형	적갈색

구분 출토유구	口徑	現高	胴最 大徑	器壁 두께	把手			외면색조
					높이	너비	단면	
대봉동 3호 구③ 도면133-2	·	(3.8)	·	0.5	0.7	1.8	원형	등색
대봉동 3호 구④ 도면133-3	·	(5.2)	·	0.4	0.7	3.0	원형	적갈색
대봉동 4호 구① 도면147-5	·	(3.9)	·	0.5	1.6	2.2	타원형	등색
대봉동 4호 구② 도면147-6	·	(5.5)	·	0.4	0.7	2.4	원형	적갈색
대봉동 4호 구③ 도면147-7	·	(4.7)	·	0.4	0.7	2.0	원형	적갈색
대봉동 4호 구④ 도면147-8	·	(6.4)	·	0.6	·	3.0	·	황갈색
대봉동 4호 구⑤ 도면147-9	·	(2.7)	·	0.4	0.7	1.8	원형	적갈색
굴화리 장검 4호 주거지	12.5	15.5	(15.2)	0.4~0.7	1.6	3.2	원형	등색(7.5 YR6/6), 적갈색(5 YR4/8)
상동 정화 10호 주거지	·	(2.9)	·	0.3	0.3	0.7	원형	적갈색
상남 제사유구	·	(8.8)	·	0.7	(0.8)	2.4	·	적갈색
상남 환호(A溝)	15.8	(8.3)	18.4	0.7	1.0	2.4	원형	적갈색
상남 환호(B溝)	·	(3.0)	·	0.7	1.0	2.1	원형	적갈색

* ()는 잔존치

* 파수의 높이는 동체에서 파수까지의 수직높이를 측정하였고, 파수의 너비는 동체와의 접합부분의 너비를 측정하였다.

표 9. 검토대상 적색마연 環狀파수부토기 현황표 (단위 : cm)

구분 출토유구	口徑	現高	胴最 大徑	器壁 두께	把手			투공		외면색조
					높이	너비	단면	지름	길이	
석장동 5호 주거지	(16.3)	(8.3)	17.6	0.7	1.4	3.6	타원형	0.4	1.8	명적갈색
서변동 22호 주거지	·	(3.9)	·	0.4	0.7	1.5	타원형	0.3	0.7	회흑색
서변동 43호 주거지	·	(8.2)	·	0.5	1.4	4.2	타원형	0.5	0.8	적갈색
동천동하도 I 층⑦ 도면352-14	·	(8.2)	·	0.7	2.8	5.2	타원형	0.6	3.2	적갈색, 등색

구분 출토 유구	口徑	現高	胴最 大徑	器壁 두께	把手			투공		외면색조
					높이	너비	단면	지름	길이	
동천동하도 I 층⑧ 도면352-15	·	(6.9)	·	·	3.2	5.6	타원형	0.5	2.6	회흑색, 적갈색
동천동하도 I 층⑨ 도면352-16	·	(4.7)	·	0.5	1.6	3.0	원형	0.4	2.5	회색
동천동 문화층① 도면411-12	·	(4.9)	·	·	1.4	2.8	타원형	0.5	1.2	적갈색
동천동 문화층② 도면411-13	·	(4.9)	·	0.4	1.4	2.2	타원형	0.6	1.2	등색
동호동 7호 구	·	(4.0)	·	0.4	0.9	2.4	타원형	0.2	1.2	등색
대학리 1호 주거지	10.6	11.9	16.8	0.5	1.6	3.5	타원형	0.5	·	황갈색
황성동 1호 주거지	15.5	17.3	20.6	0.7	2.2	8.4	타원형	·	1.6	황적갈색 회황색
시지동 2호 주거지	14.2	(5.9)	·	0.7	1.8	3.4	타원형	0.5	1.9	등색(5Y R6/8)
진라리 49호 주거지	·	(2.6)	·	·	2.8	(3.6)	타원형	0.5	2.0	황등색
진라리 64호 주거지	·	(9.8)	·	0.5	1.2	1.6	타원형	0.45	1.0	등색
대봉동 3호 주거지	9.2	(8.9)	12.4	0.5	1.2	3.6	타원형	0.6	2.8	등색
대봉동 지표수습	·	(5.4)	·	0.5	0.7	1.8	타원형	0.3	1.0	적갈색
옥곡동 A-13호 주거지	11.6	9.1	12.8	0.5	1.0	2.8	타원형	0.2	1.2	흑갈색
옥방 1지구 7호 주거지(진주박)	·	(5.1)	·	0.5	1.2	3.4	타원형	0.4	1.2	황갈색
옥방 1지구 115호 구상수혈(진주박)	(12.8)	(9)	·	0.5	1.8	4	타원형	0.5	2.0	적색
옥방 1지구 619호 요(경고연)	·	(6.4)	·	0.6	2.0	3.6	타원형	0.5	1.8	·
옥방 9지구 21호 수혈(경고연)	·	(7.2)	·	0.5	1.3	3.2	타원형	0.6	1.1	·
사월리 동편환호	11.9	(8.6)	·	0.3	1.0	3.4	타원형	0.4	0.8	암갈색
사월리 7호 수혈	·	(6.3)	·	0.3	1.2	3.4	타원형	0.4	1.0	·

* ()는 잔존치

Regional Originality of Red Burnished Pottery Unearthed in Southeastern Area of Korean Peninsula

Kim, Ji Young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red the regional originality of burnished pottery with handles unearthed primarily in the southeastern area of Korean peninsula.

Red burnished pottery with handles has been found in form of pottery and jar. The form of handle is divided into two types, i.e. ring-like handle and nipple-like handle. Moreover, handle may be distinguish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 form of vessel lip: One is a long extruded handle with a shoulder bent internally or erected on vessel body. The other is a short extruded handle on vessel body without shoulder. For instance, it is found that red burnished ring-like jar with handles show only the latter vessel lip type, while red burnished nipple-like jars with handles show both types of vessel lip. On the other hand, it is notable that red burnished pottery with handles shows both ring-like handle and nipple-like handle as well as erected or internally bent vessel lip.

In view of these red burnished potteries with handles along with their-accompanied artifacts, it is found that non-patterned earthenware vessels contain a combination of simple patterns and non-patterned section. For arrowhead, it is found that there are only arrowheads with a single tang, which imply factors of posterior period. In addition, both grooved adzes and triangular stone blade, which

is representative artifacts excavated around Songgukri, have been unearthed along with red burnished pottery with handles.

The red burnished pottery with handles shows its regional originality around southeastern area of Korean peninsula. This regional originality is in same context of ritual nature, so this study sought to estimate that such regional originality assumes ceremonial authorities according to kind of red burnished pottery as earthenware.